



# 5

## [특별 기고]

說敎의 危機와 展望 - 조재형 신부

한국천주교회의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小考 - 정치우 복음화학교 설립자, 교장

## [심포지엄]

한국 초기 교회와 순교영성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국 교회의 과제

교황 방한의 메시지와 『복음의 기쁨』에 나타난 한국 교회의 쇄신과 변화

『복음의 기쁨』과 사회복음화 과제



새천년복음화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New Millennial Evangelization



# 5

## [특별 기고]

- 說敎의 危機와 展望 - 조재형 신부
- 한국천주교회의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小考 - 정치우 복음화학교 설립자, 교장

## [심포지엄]

- 한국 초기 교회와 순교영성 - 조 광 교수
-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국 교회의 과제 - 심상태 몬시뇰
- 교황 방한의 메시지와 『복음의 기쁨』에 나타난 한국 교회의 쇄신과 변화  
- 곽승룡 신부
- 『복음의 기쁨』과 사회복음화 과제 - 이재룡 신부

새천년복음화연구소

2014

## 차례

---

발간사 / 조영동 .....	6
-----------------	---

### [            ]

說敎의 危機와 展望 / 조재형 신부 .....	13
한국천주교회의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小考 / 정치우 복음화학교 설립자, 교장 .....	33

---

[ ]

제 1 주제 : 한국 초기 교회와 순교영성 / 조 광 교수 ..... 125

제 2 주제 :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국 교회의 과제  
/ 심상태 몬시뇰 ..... 155

[ ]

제 1 주제 : 교황 방한의 메시지와 『복음의 기쁨』에 나타난 한국 교회의  
쇄신과 변화 / 곽승룡 신부 ..... 195

제 2 주제 : 『복음의 기쁨』과 사회복음화 과제 / 이재룡 신부 ..... 227

이번 학술논문집 제5권에 특별 기고 논문과 지난 5월에 개최된 “교황 방한 특별 심포지엄”, 그리고 10월에 개최된 “교황 방한 후속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주옥같은 논문들을 게재하여 발간하도록 허락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담당사제인 조재형 신부님께서 “설교의 위기와 전망”이라는 글을 주셨고, 복음화학교 설립자 정치우 회장님께서 “한국 천주교회의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소고”라는 특별원고를 본 연구소 학술지에 기고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에 걸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여 주신 저자들과 특별 기고문을 작성하여 주신 두 분, 항상 저희연구소를 도와주시는 자문위원 심상태 몬시뇰님, 대전기톨릭대학교 총장 곽승룡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심포지엄의 제1주제인 ‘한국 초기 교회와 순교 영성’에서 조광교수는 천주교 신앙인들의 순교 사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정확한 규명과 서술에 연구 성과를 이루어 그 기반이 확고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조선 초기 교회 순교자들이 신앙실천 과정에서 표출한 집단적 성격의 영성에 대한 관심이 약했다고 하였습니다. 조광교수는 초기 교회 신자나 순교자들의 생각과 신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는 사료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천주교사의 단계별 특성을 의미 있게 서술하였습니다. 제1기의 보유훈적 영성의 단계에서는 천주교 신앙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도들은 천주교 교리와 율학의 가르침을 조화롭게 파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제2기 육화적

영성의 단계에서는 새롭게 전개한 영성으로서 보유론을 포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교의 독자적 성격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육화적 영성은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체험과 그 체험의 기쁨에서 파생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제3기의 종말론적 영성의 단계는 종말과 천국에 대한 관심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제2주제에서는 심상태 신부님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국교회의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주제의 첫 번째 하위 제목은 민족 공동체 분단 상황의 어제와 오늘에 관한 것으로 남북의 적대적 분단에서 실효적 관계 개선이 절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위 제목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과제였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새 복음화’와 한민족 화해 과제, 한민족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노력 등이 서술되었습니다. 특히 한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성사적 과업’에서는 하느님과 한민족 화해를 통한 일치, 한민족 사이의 화해를 통한 일치를 도모하는 도구이자 표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우선적으로는 한민족의 교회인 한에서 책임을 통감하는 참회의 자세를 지니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비로소 한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이룩하기 위한 교회 자신의 ‘성사적 역할’에 관한 소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0월 심포지엄의 제1주제는 교황 방한의 메시지와 「복음의 기쁨」에 나타난 한국 교회의 쇄신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광승룡 신부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광 신부님은 짧게 표현하기를, 교황님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쇄신과 변화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머물지 말고, 기쁨과 청빈 그리고 연대와 세상의 변두리 고통 현장으로 나가라”라는



말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황이 원하는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 쇠신을 위한 건실한 분권화와 개별교회, 교황직과 주교직 쇠신, 사목활동의 쇠신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위 제목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쇠신과 변화인데, 여기에는 기쁨의 생활, 복음 선포의 핵심으로부터 섬기기, 분열과 싸움을 넘어서 진리를 향하여 연대하기, 삶의 변두리로, 공동선과 사회평화를 위해 나가기 등을 열거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위 제목은 그리스도교회의 쇠신과 변화로서 여기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쇠신과 변화, 사목자의 쇠신, 본당사목구의 쇠신 등을 열거하였습니다.

곽 신부님은 이번 교황의 한국 방문을 지켜보면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천하느냐가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교황께서 하신 말씀과 실천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몫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씀과 삶과 모습을 계속 연구하고 알리며 실행하는 자세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의 제2주제는 이재룡 신부님의 「복음의 기쁨」과 사회복음화 과제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발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신이 간절히 소망하는 두 가지 꿈이 있다고 인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꿈은 교회의 모든 관습과 행동양식, 시간과 일정, 언어와 구조가 자기보전보다는 현대 세계를 복음화 하는데 적절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의 선택을 꿈꾸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꿈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맘껏 기뻐하며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위 제목으로는 교회 쇠신의 절박성, 복음화의 사회적 차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 공동선과 사회적 평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맺음말에서는 우리가 실행해야 할 과제들을 몇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난은 직접적이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공공복지인 것을 넘어 사회정의와 연관된다고 볼 때, 정의의 윤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제나 재정의 중요성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와 재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부터, 지상의 재화는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것이라는 점과, 사유 재산은 사회적 책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화의 사용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넘어서 공동선에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연대적 문화로의 이행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회 속에서 한데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양심 형성과 증거라는 전망 속에서 교회의 복음화 미션은 다른 그리스도교 종파들, 다른 종교들, 그리고 선의를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여 인내 속에 추진할 때 보다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집에 수록된 모든 논문은 “교황방한준비위원회 영성신심분과”가 주최한 두 차례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것들입니다. 빛나는 심포지엄을 두 번이나 주최하여 주신 영성신심분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논문집 발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세종 부소장님, 임선희 연구실장님, 장미자 사무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4. 11.

새천년복음화연구소 소장 **조영동** 세례자요한



[ ]

- 說敎의 危機와 展望 / 조재형 신부
- 한국천주교회의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小考 / 정치우 복음화학교 설립자, 교장



[ 1 ]

# 說敎의 危機와 展望

조재형 신부  
(서울대학교구 성소국장)



# 說教 危機 展望

조 재 형 신부

(서울대학교구 성소국장)

가끔씩 본당에 강의를 갈 때가 있다. 본당 신자들은 본당 신부님들의 강론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는다고 한다. 한국을 방한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많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다.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 교황님의 말씀은 강력한 호소력이 있었다. 이에 본인은 현대인을 위한 바람직한 설교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한다.

## 1

신앙의 위기가 증대되거나 약해지는 요인들은 많고 다양하겠지만, 오늘날의 세계에서 신앙의 결핍에 대한 가장 심각한 요인 중에 하나는 설교의 질적 저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75년 9월의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회중이나 신자들이 신앙이 약해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낡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삶과 분리된 그리고 현대의 경향과 취향에 반대되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설교했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러서 현대 자유 문명국에서 사는 인류에게 가장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일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설교는 죽은 방식이며, 의사 전달의 낡은 형태이며 케케묵은 과거로부터 들



려오는 메아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현대의 정보 전달 수단이 설교를 대신하게 되어서 설교는 현대의 분위기에 상응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설교자들은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했으며 확신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이 되어서 설교단으로 나가기도 한다. 설교는 오늘날 참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힐문을 당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낡아서 소용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설교자와 청중 쌍방이 모두 비슷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널리 볼 수 있는 일이다.

성직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제직의 위기와도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톨릭은 신앙을 현대에 맞게 할 수 있을는지?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느님과 사람, 가톨릭적 현세관과 종교생활 등 가톨릭이 자신의 기본적인 성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대 지성이 요구하는 바에 만족할만한 회답을 줄 수 있을는지? 가톨릭이 현대의 경제, 사회, 정치, 학술, 과학 및 지적 정신적 발전 성과와 맞서 대결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적응하여 자신이 갖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가톨릭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는지? 즉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가톨릭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가톨릭교회의 사제직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따라서 사제 직무의 한 부분인 설교직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다.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은 “사제는 신품성사의 힘으로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히브 5, 1-10; 7, 24; 9, 11-28) 신약의 참 사제로서 복음을 전하고 신도들을 사목하며 하느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축성된 자”라고 언명하고 있다.(28항) 따라서 사제직에는 고유한 세 가지 직분 즉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敎職), 신자들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직분(牧

職),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직분(祭職)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와서 이러한 사제의 직무는 사제들과 평신도들 양편이 종교행위의 의의와 본질을 보는 태도의 변화와, 종교적인 태도와 실존적인 개념의 발달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제직에 대한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제는 누구냐? 사제란 어떤 사람이나? 만약 복음의 직무가 있다면 사제가 맡아야 할 역할이 무엇이나? 즉 사제 자신의 Identity까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교의 위기를 진단해 보았다. 기름이 떨어져서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적당한 양의 기름을 주입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을 아무리 만져보아도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게 될 것이다. 정확한 원인을 찾으면 대부분의 병이 쉽게 고쳐질 수 있듯이 이제 설교의 위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 1.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오늘날 삶 속에서는 단지 경제요인만이 고려되고 있다. 사업을 위해 하느님은 무의미하다. 작업을 위해서나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나 하느님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하느님은 사회적인 중요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세속화와 생산사회는 하나요, 동일한 것이다. 현 사회 속에서 무의미한 하느님에게 인간이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어쩌면 반응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와 대도시 문화는 세계 내재적으로 정향되어 있으며 초월적인 신비를 안고 있지 않다. 정령이 숲속을 통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들이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이제 하느님에 대한 체험 기반은 극소화 되었고 하느님에 대한 모든 진술들이 불명료하고 빈

곤하며 공허하게 되었다. 예수가 전원적인 비유로써 하느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 비유들이 더 이상 체험 세계가 되고 있지 않다. 설교는 본질적으로 하느님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하느님에 대하여 말해야 하는가, 어떤가를 알지 못하기에 하느님에 대하여 말 할 수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사는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 자체에 있어서 새로운 실마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는 설교의 위기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데 하느님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교의 근본 문제는 여전히 하느님이 문제이며, 다른 모든 문제는 이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메시지의 문제

어떤 취지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면 그 취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이 자세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의욕, 해명을 요구하는 의문, 동시에 그것을 반드시 규명하고 싶은 불확실 감을 뜻한다. 묻지도 않은 질문에 해답을 하거나 필요하지도 않은데 호의를 보이거나,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에게 어떤 이념을 제공하는 따위는 적개심 아니면 무관심밖에 초래하지 못한다. 설교란 기쁜 새 소식(복음)을 알리는 일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청중들에게는 전혀 새 소식이 되지 못한다. 사실 설교를 들을 때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듣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즉 설교의 내용이 중복됨으로 인해 창의적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교는 진리를 말하는데 인간은 거짓 없고 순수한 진리를 두려워한다. 즉 진리는 철두철미한 것이다. 진리는 인간 생활의 근거에까지 깊숙이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진리가 가져다주는 자유를 희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그 진리에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이다. 자기

도 예수님으로부터 질책 받던 그 무리에 속한다고 고백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거나 적개심을 품는 것이 상정이다. 설교내용의 중복과 진리와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설교자와 청중들이 호흡을 같이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3. 반 교회적인 분위기

많은 젊은 사제들이 설교를 하는데 있어 교회의 제도와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조차 없어져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심은 교회의 본질과 권위에 관하여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연구해 감에 따라 때로는 그리스도 자체에까지도 미치고 있다. 전통적 종교의 가치관에 대하여 반항하려는 즉 총체적 문화 체계에 반항하고 자기의 인격적인 면을 고취하려는 경향이 팽배해 있기도 하다. 역할이란 사회전체 혹은 부분적인 단체가 그들 가운데서 일정한 직능을 이행하도록 어떤 개인에게 부여하는 여러 가지 일이다. 사제의 역할과 대부분의 직능들(특히 권위를 가진 것들)은 성직에 임명되자마자 주어졌다. 사제는 학교를 돌보았고, 사람들의 영적 지도를 하였고, 심리학적, 교육학적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며 재산을 관리했다. 그런데도 이러한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특수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예술과 기술과 과학이 전문화 되었으며 권위에 대한 원칙은 그것을 부여하는 방법을 새롭게 하였고, 보편적인 권위의 개념은 사라져 버렸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거슬리고 주재님은 방식으로 충고한다는 의미가 되었으며 설교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체 열변을 토한다는 의미가 되어버렸다.

### 4. 사제와 20세기 문화와의 격차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놀라운 발전은 오늘의 세계를 새로운 미래

사회로 끌고 가고 있다. 흔히 테크놀로지혁명, 전자혁명, 정보혁명, 커뮤니케이션혁명 등으로 불리는 이 새로운 변화는 급속도로 세계 전역에 전파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사회는 획기적이며 서로 모순되는 여러 양상들로 특징 지워진다. 그것은 가능성에 가득한 세계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위험을 내포하는 사회이다. 현대의 각종 변화의 근본원인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있으며 이와 같은 과학 기술의 발달은 세 가지 특성이 있다. 가속성(accelerative thrust), 참신성(novelty), 다양성(diversity) 등이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인격적인 상호접촉이 대부분 기계를 매개로한 접촉으로 대체 되어감에 따라 진지함이나 성실성, 상대방에 대한 존경보다는 기술성과 적법성, 효율성 등의 가치가 중시되고 여기에서 비인간화가 초래되기도 한다. 그러나 설교자들이 전자시대에 살고 있거나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 설교는 부적당하고 비현실적이며 추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교회는 커뮤니케이션이 인간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 5. 교회가 복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함.

오늘날의 교회가 복음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이 설교를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교회와 윤리에 상대성이 적용되며, 절대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다윈은 많은 사람에게 종교는 진화의 한 국면이라고 확신 시켰고, 마르크스는 종교를 사회현상의 하나로 납득시켰으며, 프로이드는 그것을 하나의 노이로제로 확산 시켰다. 성서 비평은 많은 사람에게 대해서 성서의 권위를 훼손 시켰으며, 실존주의는 순간의 만남과 결단만이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역사의 뿌리를 단절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무한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의 인격과 예수의 본질적인 신성(神性)까지 부인하는 급진적 신학과 세속적 신학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이 설교자들로 하여금 용기를 잃게 만들고 있다.

제 2차 바티칸공의회가 가톨릭의 역사 중에서 분수령의 역할을 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 성과는 여러 세대를 통해서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중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어떤 어려움이 나 긴장도 노출 시켰다. 쇠신은, 인간의 참된 경신(worship)은 그가 교회에서 행하는 경신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취하는 그의 태도라고 말하기도 함으로써 설교자들로 하여금 확신을 상실케 한다. 사목현장은 교회는 세상과 유대를 가질 때 참된 교회라고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의식 자체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결정하는 애덕 자체라고 말하기도 한다. 많은 설교자들이 새로운 종교적 비전과 그들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종래의 사목적인 과업을 조화시키지 못하는데서 설교의 위기가 초래 되었다. 따라서 사제들은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설교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설교위기의 원인을 고찰해 보았다. 신학의 다양성은 설명하기는 좋았지만, 설교자로 하여금 절대적인 확신을 상실케 하였고, 반교회적인 풍조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교를 들을 수 없게 만들었으며 현대세계의 급속한 변화는 설교자들로 하여금 설교하고자하는 용기를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다.

### 3

그리스도교의 지도자들은 이제 현대라는 금송아지 주위에서 추는 그들의 춤을 그만 두어야 한다. '현대인이 교회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라

고 묻기 전에 교회가 현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라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여러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종교적 해답에 대한 갈망은 팽배해 있으며 점점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현상은 세속화의 과정이 강력하게 역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또 다른 신앙의 시대가 밝아옴을 준비하면서 교회는 현재의 사기저하 상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권위의 자세를 취하며 교회의 변함없는 메시지의 과감한 선포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호출(summons)인 것이다. 설교자들이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기한 교회의 현대화 (aggiornamento)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현대인을 위한 설교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제 현대인을 위한 설교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현대인을 위한 설교는 진실해야 한다.

복음을 말로 표현하고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비록 자기 자신에게만 설교하려 할지라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설교자가 우리시대의 슬픔을 애매한 말이나 핑계를 대지 않으면서 우리 시대의 슬픔에 복종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은 복음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느끼고 체험한 바를 이 시대에 밝혀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복음이나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설교는 어떠한 위험이 따를 지라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설교한다는 것은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며, 사랑을 가지고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말하는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 뿐 아니라 그 진실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선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은 없으며, 진실보다 더 매력적인 것도 없다. 이것은 위선적인 것들

에 대해서 가장 심하게 탄핵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설교자가 진실해야 하는 데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말할 바를 진실하게 말해야 하며, 또 하나는 자신이 설교할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삶이 설교와 모순된다면, 사람들은 기침과 재채기를 하면서 감기약을 선전하는 판매원의 말을 믿을 수 없듯이 복음 선포의 메시지를 인정하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진실한 설교는 십자가의 고난을 재현시킨다. 그 이유는 그 스스로 십자가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어떤 설교자도 인간들에게 빛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까닭이다. 자신의 어둠을 통해서 청중을 하느님의 빛으로 인도하고자 나서는 사람이 참된 설교자일 것이다.

## 2. 현대인을 위한 설교는 열정적이어야 한다.

열정은 진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진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바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정이란 심오한 감정이며, 설교자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메시지에 관해 즐면서 청중들이 깨어 경청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교가 너무나 힘이 없고 또한 부드럽기 때문에 잠자는 죄인들을 들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오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성과 감정, 강화와 호소가 적절하게 종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가 자신이 그리는 어떤 그림에서도 자기는 생명을 거는 모험을 해왔다고 말한 일이 있다. 예술가가 과장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여기에 한 사람이 그리는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지고 모든 것을 걸고 애써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설교자는 그보다 더욱 더 많은 것을 바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느님만이 나의 행복이시고(시편 16, 2), , 하느님의 언약은 영원한 나



의 유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시편 119, 111)이라고 시편 저자는 이야기 한다. 만군의 야훼 하느님이 이 몸을 주님의 것이라 불러 주셨기에 주님이 말씀이 그렇게도 기쁘고 마음에 흐뭇하기만 하였습니다. (예레 15, 16)라고 예레미야는 시련 가운데서 말씀의 기쁨을 생각하였다. 분명히 예레미야에게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기쁨을 받는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 11)라고 말씀 하신다. 설교자가 성서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때 설교자는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오로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 입니다(1코린 9, 16)라고 말하였다. 설교자가 이와 같은 기쁨과 정열을 가지고 설교할 때 현대인들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루카 12, 49)

### 3. 현대인을 위한 설교는 희극적이어야 한다.

눈물과 마찬가지로 웃음도 인간들이 하느님을 그리워하게 하는 이 세상의 어두움 때문에 발생한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웃음은 어둠의 동반자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해독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성서에는 희극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번뇌하게 만드는 위로자들과, 부스럼을 긁어 대는 것과, 자식들의 수많은 장례식 때문에 미납된 장의사의 돈 독촉과 종들까지 애먹이는 것 등에 지쳐 죽을 지경까지 되어있던 욥이 어떻게 자기의 충혈된 눈으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 분이 일하실 때면 새벽 별들이 펼쳐나와 노래를 부르고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나와서 합창을 불렀던 그런 존재를 실제로 볼 수 있으리라고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 누가 감히 하느님께서 정직하고 믿을 만한 에사오를 택하시지 않고 사기꾼

이고 비열한 야곱을 선택하실 줄 예측 할 수 있었겠으며, 이집트에서 어떤 남자의 머리를 돌로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쳐 나왔던 모세를 선택하실 줄 알았겠는가? 그 누가 다윗과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 사이의 부정한 관계에서 훌륭한 성전을 건축할 정열을 지닌 높은 IQ의 솔로몬이 태어날 줄을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 1, 28)는 말씀은 희극이며, 그 희극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 말씀과 선포자로서의 예수와도 관계를 지닌다. 바울로는 그가 고린토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감히 복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언급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1코린 1, 23)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는 일종의 희극과 같았다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 역시 희극이다. 그를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예수를 동산지기인줄로 착각 했었다. 하느님의 관점에서 볼 때 비극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반면에 희극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으로 보시기도 한다. 하느님의 구원의 희극은 그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발생했고 그 안에서 하느님은 인간과 함께 그리고 또한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웃는 것이다. 죄와 은총, 부재와 실재, 비극과 희극, 이들은 세상을 나누어 갖고 있으며 그들이 만나는 곳에서 복음은 생겨난다.

희극적인 요소는 적합한 대목에서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웃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첫째, 그것은 긴장을 해소시켜 준다. 대개의 회중은 정신적 집중을 지속할 수 없거나 혹은 정신적 압박을 지탱해 나가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둘째, 그것은 회중들의 담을 무너뜨리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목이 곧고 다루기 힘든 정신 구조를 가지고 교회에 온다. 그들의 빠친 듯한 입술과 찌푸린 이맛살을 보라 그것이 바로 그들이 굴복하지 않는 저항감을 갖고 있다는 상징인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자신과는 달리 엉뚱하게 웃게 되면 잇달아 그의 저항 의식은 무너지게 된다.

셋째, 그것은 거드름을 피우기를 잘하는 인간의 허위를 분쇄함으로써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 4. 현대인을 위한 설교는 성령과 함께하는 설교여야 한다.

설교의 정열은 설교자의 정열에 의하며, 이는 또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만일 성령의 불이 설교자의 가슴을 태우지 않고 또한 설교자가 성령의 영으로 불타지 않으면 (로마 12, 11) 설교는 결코 뜨겁게 되지 못할 것이다. 성령은 설교를 준비할 때 영감을 주고, 실지로 설교할 때 열정을 주며 참된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인 것이다. 예수님 자신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비로소 성령과 함께 설교를 시작 하신다(마르 1, 9). 제자들을 각처로 파송하실 때의 말씀 가운데서 장관들과 왕들 앞에서 대변해주시는 분으로서의 성령이 약속 된다.(마태 10, 19) 성령 강림의 날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 된다는 사건은 언어의 기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들은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 하였다 (사도 2, 4) 바오로가 에페소로부터 온 아폴로의 제자들 위에 손을 얹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이상한 언어로 말하고 영감을 받아서 설교를 했다(사도 19, 6) 요한의 복음서에 약속되어 있는 협조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으로 되게 하시며(요한 14, 26) 또 예수

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매개가 될 숨을 내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 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요한 20, 22). 성령으로서의 하느님은 설교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첫째, 성령은 설교자를 변화 시킨다.**

한 사람의 그리스찬으로서 설교자는 장차 얻을 기업인 전체 구원의 보증으로서 그리고 약속의 첫 열매로서 성령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는 하느님의 소유로서 특히 하느님 자신이 스스로 택하여 소유로 삼으신 자로 구분 되어야 한다. 또한 성령은 구원의 확실한 보증인 것이다.(2코린 1, 22; 에페 1, 13; 4, 30) 설교자는 성령이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지으시는 대로 변화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평화와 인내와 자비와 온유와 절제(갈라 5, 22-23)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설교자의 전 생애는 성실한 삶이어야 하며 성령께서 그의 전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데 따라서 거룩함을 발전 시켜야 한다. 변화된 설교자만이 청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성령은 성서를 조명해 준다.**

성령은 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종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한 14, 26), 그들을 진리로 인도 하시고(요한 6, 13),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요한 16, 14)

**셋째, 성령은 설교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 시킨다.**

설교자가 변화를 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 사람들이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변화될 때 성령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

다. 베드로는 하느님의 능력에 의해 변화 되었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고(마태 4, 18-20), 성령께서 성서를 조명해 주셨을 때 그는 오순절 날의 이 사건이 바로 요엘서 2장 28- 32절에 예언되었던 사실이라고 선포하였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따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한다. 이는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바오로의 생애에서도 꼭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9장 1- 20절에 따르면,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 변화 되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1코린 2, 4) 설교의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에페소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토 교회와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신자들의 집단을 생각하면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를 입었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하느님의 일이 1세기에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었으리라고 생각할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성령은 지금도 숨겨져 있는 설교자들을 변화시키시어 섬기라고 부르신다. 성령은 성서를 조명해 주시며 설교자를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신다. 설교자는 성령이 계시는 전(殿)이기 (1코린 6, 19) 때문에 자신을 더럽혀지지 아니한 도구로 지킬 의무가 있다. 설교자는 하느님의 뜻에 관하여 설교자가 알고 있는 바를 순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하느님이 명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하느님의 능력과 섭리를 추구하여야만 한다. 동시에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야 하며 약속해주신 성령과 협력하여 일해 나가는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 설교자가 진실하다면 성령은 설교자와 함께 일하시며 그의 설교를 통하여 회중들을 하느님께로 이끌 것이다. 이상으로 현대인을 위한 설교를 살펴보았다. 진실한 설교자가 열정적으로 기쁜 소식을 회중들에게 선포할 때, 성령은 설교자를 통하여 회중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                    |

“I must preach the kingdom of God ( Lc. 4:43 ).”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ppointed me to preach the gospel to the poor ( Lc4:18 ).” Jesus sent by the Father understood his mission in this way. Accordingly Jesus' incarnation, spiritual works, catechism, the apostles' mission, twelve apostles' dispatch the death on the cross, the Resurrection, the continuous existence of Jesus Christ; etc, We can understand that all the mysterious things about Jesus are elements in preaching of the gospel. Accordingly missionary work is a matter concerned the faith and it is an apparent indication showing our belief toward Jesus and the love of God to us.

In this thesis, we will study a sermon, which is a motive to reform the church, to restore a status as Christians, to give a new power and motive, and also stands one of the distinguished situations in the ways of missionary works.

Jesus began his public life through the sermon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at you and believe the gospel ( Mc. 1:15 ).” Paul, an apostle, said “Faith cometh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 Ro. 10:17 ).” We know that the church has done his mission for missionary work through a sermon, according to the teaching of Jesus, the apostles, and Catholic fathers.

According the sermon has the oldest tradition among the ways of

missionary works in Catholic church. It is also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way, but it has faced a critical situation to this modern age. Preachers admit that they have had many difficulties in preaching and have been anxious because their acts do not conform to their teaching, with the shortage of knowledge, not well connected with real life, the shortage of information, the shortage of materials, too much work imposed on him.

The audience said, "The most unpleasant thing to do in this modern developed country is to listen to a sermon."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want to examine an exact cause of the critical situation of a sermon, and want to show a sermon for modern people, have studied a sermon for children, who are masters of a future society and church. It is very important for children to read and understand the gospel. when they experience a firm belief and mysterious sense, their attendance in the ritual will be significant.

The sermon for modern people should be energetic. It is certainly impossible for preachers to expect the listeners to listen to their message. When a preacher makes a speech with delight and energy, he can excite awaken the hearts of modern people to gospel. The sermon for modern people should be a good delivery of good news. Comic elements are effective to modern people who have lost smile in delivering good news of the gospel.

The sermon for modern people should be with Holy Spirit. Holy Spirit works with preachers and through their sermons leads people to the Holy Father. When a sincere preachers good news to people energetically, the crisis of the sermon will be overcome. I think Holy Spirit will change people through preachers.

Those who hear and deliver good news through a sermon for modern people can seek and construct the kingdom of God with the help of the gospel accepted and faith shared become one in the name of Jesus.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begun like this is for all peoples of all generations. Those who accept this good news and become members of the community for salvation can deliver good news accepted.





[ 2 ]

# 한국천주교회의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小考

정치우 안드레아  
(복음화학교 설립자, 교장)



## 小考

정 치 우 안드레아

(복음화학교 설립자, 교장)

복음화(Evangelization)란 용어가 그리스도교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의 문헌에 공식적으로 수록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복음화의 개념은 1974년 10월 개최됐던 제3차 주교대의원회의에서 “복음 안에 선포된 그리스도의 신비에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됐다. 이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3년 19차 라틴아메리카 주교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복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은 물론 새로운 복음화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또한 새로운 복음화에는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새로운 복음화는 교회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의식 속에서 현대사회 안에 드러나는 다양한 징표들 안에서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복음과 일상생활들 사이에서 새로운 창조적 통합을 이루도록 이끄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권고서인 「현대의 복음선교」와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교회의 선교사명」에서도 교회의 근본 소명은 복음화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복음화는 이 시대 우리 교회의 절체절명의 과제이자 사명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가 어떤 의미의 말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여러 가지 요소로 성립되는 복잡한 과정인 복음화를 쉽게 접근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화라는 용어가 보편되고 당연한 신자 본연의 임무이고 소명임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한국교회의 복음화 현주소와 복음화의 구체적 방법 등을 현실에 접근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재 혼용되고 있는 선교나 복음화는 같은 내용이면서 다른 내용이다. 그러나 신자들은 선교가 바로 복음화라는 등식을 매겨 놓고 있다. 또한 새로운 복음화라는 말이 어느 틈엔가 꼬리를 감추고 선교라는 말로 대신 사용되고 있다. 선교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으로, 주로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을 파견해 비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행위다. 그러나 복음화는 파견된 사람에 의해 복음이 선포 되는 선교뿐 아니라 인간의 삶 안에 비복음화된 모든 문제들, 교회와 신자, 비그리스도인까지 모든 인간들이 복음의 빛으로 그 삶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즉, 인류의 삶의 양식, 의식구조 등이 복음의 새로운 가치로 다시 정립되어 참인간, 참가치를 추구하는 평화의 인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고, 생활함으로써 얻어지는 참평화와 행복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삶으로 증거해 보이고 또한 명백한 복음선포를 통해 모든 인류가 하느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복음화는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모든 신자들의 존재 이유다.

## 가

교회 존재의 이유와 그리스도의 사명, 나아가 그 사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평신도의 한사람으

로서 주변을 돌아보면 무척이나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당에 다니는 것이 동일시 될 수는 없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미사도 드리고 성당에서의 봉사활동도 참여하곤 한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다.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적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조직하신 신정적 조직체이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우리는 그 직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자신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실제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진실로 그분의 존재 이유와 그분을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지 잠시 멈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할 때다.

복음화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신자 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헛해 왔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다. 너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하느님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믿었다고 고백한다. 또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던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주님을 올바로 알게 됐고, 나 자신과 교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실천하게 됐다고 말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형식에만 치우친 종교생활에만 익숙해져 있다.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존재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올바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것에는 게을리해왔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래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명확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 교회는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인 신자들의 의식과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 보여야 한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 구성원인 신자들의 존재 이유다.

오늘의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며, 그들을 가르쳐서 나의 제자로 삼으라고 당부하셨다. 예수님께

서 제자들을 뽑으신 것처럼 신자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뽑힌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파견하셨던 것처럼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복음화의 개념이자 원리다.

교회는 선교적이다. 그러나 선교적이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쇄신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인 신자들이 먼저 배우고 훈련돼야 한다. 복음화는 먼저 나 자신의 복음화로 부터 시작 된다. 나 자신이 복음화로 무장돼야 복음의 참가치를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면 새로운 열정이 생겨나게 된다. 복음화는 교회의 존재이유이자 근본 소명이다. 교회가 복음회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 가

현대 세계를 바라볼 때 과거 그리스도적이었던 나라와 민족들은 종교 무관심과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근대 500년 미만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나라들, 즉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여기는 했지만 아직 복음적 삶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 천주교회는 1784년 첫 세례자가 배출된 후, 180년 만인 1970년대에 천주교 신자가 100만 명에 이르렀다. 이후 매 10년마다 100만 명씩 증가하는 복음화율을 보여 왔지만 인구비율로 볼 때 2000년대부터 그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현재 약 500만 명의 천주교 신자 중 상당수가 냉담 중이거나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입교한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잘 모른 채 형식적 행위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핵심인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무엇이 복음적 삶인지는 모르면서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내적 쇄신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본당의 단체에 들어가 활동하면 상당히 열심(?)한 신자라고 자부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기도가 무엇이고 왜 기도하며 생활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또 교회가 무엇이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신자인 나는 누구이며,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 복음화가 교회의 근본 소명이고 신자의 근본 소명이라는 점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3년 19차 라틴아메리카 주교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복음화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고 새로운 복음화에는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복음화의 방향과 내용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현대의 복음 선교 33항에서 제시하셨던 현대 세계 복음화의 3가지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중에서도 비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업과 기존의 신자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재복음화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다원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원주의의 여러 장점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복음의 가치를 그 안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복음적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인들에게 분명하면서도 확신에 찬 새로운 복음화가 요청되는 때다. 과연 지금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새로운 방법과 표현을 추구하고 있는지 새로운 열정이 생겨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묵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선교사명에 대한 전통을 잘 살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20년 전, 한국에서 새로운 복음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딪친 가장 큰 벽은 교회의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화라는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겪었던 어려움이었다. 특히, 선교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목표나 전략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저 과거에 해왔던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이었다. 선교의 방법은 여러 가지였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경우는 없었다. 예비자 입교식 날짜를 가르쳐주고 비신자들을 인도해오라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이었다. 그나마 열심한 신자들은 이웃과 가족들을 찾아 성당에 다니자고 권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열심히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해 왔다. 하지만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못했다.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체험은 있는지 따져보지 않았고 막연하게 비신자들을 성당으로 이끌면 된다는 경향이 있었다. 선교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 또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구원관이 정립돼 있지 않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새로운 복음화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첫째 과제는 모든 신자들의 재복음화다. 재복음화를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자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구원적 삶, 즉 이 세상에서부터 참다운 평화와 행복을 맞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해

야 한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고 삶의 변화를 통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쁘고 행복한 삶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권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내적 쇄신이 선행될 때 그 바탕 위에 이론적 무장과 더불어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 교회는 다양한 직무와 기능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다.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교회의 근본 소명은 복음화이고 엄격히 말해 교회가 복음화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셨다. 모든 것이 전문화되어 있는 현대사회 안에서 복음 선포는 무척이나 힘든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선교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전문가가 돼야 이 사회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신자는 모두가 선교사가 돼야 하지만 아무나 선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가

우리는 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랑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원을 위해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과 예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받아들인 이들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참 평화와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한 삶으로 초대한다. 하느님과 예수님

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사랑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거나,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그들이 고통스럽고 무미건조한 삶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유언 말씀 때문이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예수님의 유언을 소중히 간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신앙인의 의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이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고 당부하셨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쳐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먼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는 누구도 없을 것이다. 사도 바오로께서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 이웃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잘 인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선교 사명」에서는 복음 선포는 먼저 복음화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자체로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삶을 나누면서 자신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을 경험한다. 복음은 함께 나누고 전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혼자 간직하며 행복해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복음을 전해

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 자신이 더욱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하신 말씀은 ‘먼저 회개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맘에 들어 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서로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고, 감싸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생각하며 배려하고, 기득권을 주장하며 울타리를 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등. 열거하자면 너무도 많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위적인 삶의 내용을 회개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 거짓과 위선이 판치는 사회, 교만과 독선이 지배하는 사회는 하느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더욱이 하느님의 백성들 안에서조차 거짓과 위선, 교만과 독선이 판을 친다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도 현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식별해서 바꾸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 모두는 우리 사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의 ‘회개의 삶’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스도인 스스로 무엇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먼저 깨

닫고 실천함으로써 삶을 통해 하느님을 증거 해야 한다. 교회가 새로운 복음화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모습들 가운데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찾아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껴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말하고 증거하는 교회의 진정성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말은 그럴 듯하게 하면서 본인이 실천하지 않는다거나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고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누가 이와 같은 일에 앞장서야 하겠는가? 물론 지도자들이다. 지도자들이 좋은 본모습을 보여야 따르게 된다.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나약한 우리 인간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부족한 우리의 능력과 의지와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신다.

우리 교회의 절체절명의 과제는 새로운 복음화임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기도'다. 1990년대 세계적으로 새로운 복음화 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추진된 것도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운동'이었다. 기도의 힘을 새삼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우리는 이미 20세기 말 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공동의 지향으로 기도했던 러시아의 회개를 경

험한 바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항상 기도하시며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셨다.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하느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세계의 모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세상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새로운 복음화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분이시다. 우리가 사심 없이 기도드린다면 하느님께서서는 반드시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하신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복음화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이고 모두의 공동선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다. 누구나 개인적으로 청하고 싶은 것이 많겠지만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자 개인은 물론 각 신심단체, 활동단체는 언제나 교회를 통한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나아가 전통이 세워져야 한다. 눈을 크게 뜨고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보자. 몇몇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신자가 공동의 지향을 갖는 '기도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라고만 한다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할 것인가? 세계가 복음화 되면 각 나라와 각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나 자신도 자연스럽게 복음화 될 수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하기 위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 사실 어떤 종교든지 종교의 역할은 세상을 평화롭게, 인간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적으로 해석한다면 세상의 여러 환경, 관습, 사상, 행동양식을 변화시켜 하느님의 뜻에 맞갖은 삶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복음화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에서 교육과 종교 혹은 사상으로 이러한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인간의 힘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만큼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고 또한 수많은 죄로 인해 인간 본래의 모습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 성령에게 도움을 청해야한다. 복음화의 주역이시고 이 시대,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께, 철저히 의탁하고 기도해야한다. 아니,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는 옳드려 기도해야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복음화가 꽃을 피울 수 있다.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신앙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 할 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19-20).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유언처럼 당부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교회는 그동안 끊임없이 복음 선포가 교회의 근본 소명임을 알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복음이 이 땅에 선포 된 지 2000년이 넘는 지금에도 전 세계 인구의 1/3도 채 안 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복음의 참 진리를 잘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복음선포는 여전히 시작에 불과하다.

200년이 넘는 한국교회도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한 때 한국교회는 큰 행사들을 치르며 보여줬던 선교적 열성이 이제 지나간 역사로 넘어가고 있다.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복음 선포의 열성이 식어가고 복음화율이 인구증가율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올바른 구원관이 적립되어 있는가 라는 것이다. 신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를 죄와 죽음과 악에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주신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다. 그분을 통해 구원에 확신을 갖는 신자라면, 그리고 구원적 삶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도를 증거하고 그분에게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개인적 구원에 대한 불확신과 구원관이 정립돼 있지 않아서다.

복음화학교에 오는 많은 신자 분들 중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하던 분들도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관이 정립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어떤 분들은 잘못되거나 편향되고 일방적인 지식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신앙을 만드는 분들까지 있었다. 새로운 복음화는 먼저, 우리 신자들부터 재복음화가 돼야한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지, 우리 자신이 먼저 재복음화 돼야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 늦었다는 것을 알 때가 오히려 좋은 기회이다. 신자들의 재복음화를 위해 무엇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 하느님의 사랑의 증표로 파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과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다. 「현대의 복음 선교」 14항에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 선포, 즉 선교에 있다고 말한다. 교회의 존재의미는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하는가? ‘사랑’ 때문



이다.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하느님 백성들이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하느님의 백성이 전제된다. 하느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그분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안다. 하느님의 백성이 자비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체험하게 돼 그분을 전하고 싶어진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참 행복의 길과 부활의 영원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남기신 유언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루카 21, 43)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느님 나라와 그 나라를 사는 방법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것이다. 바오로 사도께서도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로마 10, 14)라고 말씀하셨다. 복음 선포를 위해 파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사명을 교회, 그리고 교회를 통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셨다. 유언의 상속자는 현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복음 선포는 하느님의 구원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사목자나 전문 선교사들에게만 그 직무가 수여된 것이 아니다. 교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직무다. 세례 성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부여된 의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는가?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들어보자. “사실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1코린 9, 16)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므로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성숙해진다.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새출발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각 지역교회에서는 공의회 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그 열매가 새로운 신심운동으로 이어져 여러 형태의 신앙쇄신운동이 전파됐다. 교회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안에서부터 믿음을 통한 열정이 일어났다. 그 결과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활성화와 더불어 선교의 열정도 생겨났다. 신앙쇄신 운동은 신자들에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확신과 기도생활 그리고 성경읽기 등 신심생활에 열정을 불러 일으켰다. 고(故)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강조하신 새로운 복음화의 방법, ‘새로운 열정’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

신앙쇄신운동은 그후 선교에 열정을 쏟아 한동안 교회 내에서도 복음화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는 새로운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 중 하나는 한국 신자들의 기초가 약하다는 점이다. 한국천주교회의 대부분 신자들은 세례성사를 받은 지 40년 미만인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구교우는 전체의 20%를 넘지 않는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 뿌리가 약하다.

또한 믿음의 확신과 경험 없는 신자들이 너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치

우쳐 있는 것을 꺾을 수 있다. 주일미사에 참례하고 교무금과 헌금을 내고, 판공성사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다. 조금 더 나아간 신자들의 경우도 본당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신자들에게 “선교하십시오” 라는 말은 그렇게 와 닿는 말이 아니다. 선교는 해도 그만,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선교는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마음 안에서부터 스스로 동기가 부여되고 열정이 솟아올라야 하며 사명감이 생겨나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동기 부여나 사명감은 신자 개인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을 끊임없이 만들어 줘야 한다. 신앙생활의 튼튼한 기초를 닦아 주는 교리교육과 세례성사를 받은 후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자 스스로 하느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전해줘야 한다. 또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복음적 삶의 실천을 통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새로운 열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행복한 삶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현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재점검 해보고 새로운 열정이 생겨 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되돌아보고 조명해 봐야한다.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열정’이 생겨 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1주기 추모미사를 시작으로 추기경님의 추모 열기가 다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많은 분들이 추기경님의 생전의 활동을 되새겼고, 때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추기경님의 업적이 드러나기

도 했다. 추기경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중 일부는 천주교회에 입문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김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이처럼 종교를 떠나 온 국민의 마음에 김 추기경님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배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추기경님께서 살아 계실 때 실천하셨던 ‘사랑’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김 추기경님에 대한 추모 열기와 그분의 영향력이 퍼져 나간 것은 추기경님께서 장기기증을 비롯한 많은 사랑의 실천적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교회는 내적 쇄신을 통해 새로운 복음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교회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시대의 징표를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기 복음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와 교회 구성원 모두가 복음을 삶으로 보여 줌으로써, 복음적 삶을 통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음적 삶의 내용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 이러한 과정은 사랑의 문화를 만든다. 인간 상호간에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해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 속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고 증거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랑 실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실천한다면 세상의 복음화는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실천이라고 말하면 무슨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사랑 실천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평소에 좋은 말하기, 인사 잘하기, 칭찬해 주기, 관심 가져주기, 밝게 웃기 등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실천은 쉽지 않다. 아주 쉽고 간단한 것도 잘 안 되는 이유는 평소에 사랑을 실천하고 살겠다는 의식이 부

죽해서다. 깨어 있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길, 또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기복음화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을 들여다보자.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복음화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증거하며 시작된다. 또한 복음화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된다.

## 가

한 자매님이 고부간의 갈등문제로 상담을 청해온 일이 있었다. 그 자매님은 결혼 후 지속된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끊임없이 분노하고 시어머니를 저주하고 있었다. 먼저 자매님께 그동안 살아오며 시어머니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권했다. 그랬더니 자신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해 다시 한 번 권했다. 그러자 조금씩 자신이 잘못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사실을 고백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볼 것을 권했다.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께 잘못했던 점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십시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분은 완고했다. 안색은 이내 바뀌었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조용히 그 자매님에게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으며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제서야 자매님은 용기를 갖고 시어머니께 용서를 청했다.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시어머니도 점차 변해 지금은 그 누구보다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됐다고 한다. 나 자신부터 변하면 상대방도 서서히 변해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단적인 예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평범함 속에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숨겨져 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해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잘못은 잘 기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은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아둔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급기야 서로 등을 돌리기까지 한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나아가 그것을 바꾸라고 요구하면 강한 반발심이 생겨 방어하고 때로는 상대를 공격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길 원한다면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내가 먼저 변해야 남이 변하고 남이 변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회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하느님 안에서 비춰보고 잘못된 자신의 모습 즉, 하느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바꿔나가야 한다. 개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비그리스도적인 모습, 지극히 인간적이긴 하지만 비성서적이며 비하느님적인 모습들은 버려야한다. 복음화는 바로 나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 모습을 다른 이들이 바라보면서 우리를 변하게 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 수 있다.

사랑은 용서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용서는 자신을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내적 쇄신은 복음화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새로운 복음화는 새로운 표현과 방법이 필요하다. 과감하게 그리고 용기를 갖고 자신부터 변화시키자.

가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지만 삶에

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고백을 듣는다. 천주교 신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시대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한다. 어느 한 식당 주인아주머니의 말이 생각난다. 자신을 개신교신자라고 소개한 그분은 자신의 식당에서 성직자를 비롯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식사와 회식을 한다고 했다. 문득 선생님의 그룹과 다른 신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었다. 같은 신자라고 말했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그룹은 식사전·후에 꼭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욱이 회식자리에서 한 번도 큰소리 내며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다함께 기도하고 끝맺는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었다고 말씀하셨다. 신앙인으로서의 작은 실천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보인 사례다.

천주교 신자라면 어느 곳에서든 식사 때 식사전·후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성호경조차도 체면 때문에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세상 안에 살면서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것 같다.

최근의 한 종교단체는 스포츠선수들의 세레모니를 보고 특정 종교의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구사회에서는 물론 이슬람 국가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에서조차 십자 성호를 긋는 일로 시시비비를 따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작은 일 같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할 만큼 우리는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힘겨운 시대인 것 같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다. 신자라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과 함께 구체적 삶 안에서의 자기 표현이 있어야 한다. 지식은 삶을 뒷받침하는 역할일 뿐 신앙자체가 될 수 없다. 겉모습에만 신경쓰다보면 정작 신앙의 본

질에는 다가가지 못한 채 그 형식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을 지식이나 관념에 가둬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본연의 사명이다. 구체적인 삶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없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신앙을 증거하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생활 속에서의 사소한 실천으로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도록 도울 수 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진정성을 갖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이 신앙적인지, 사소한 것이지만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항상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생활에서 드러내고 증거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 삶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회개의 삶,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증거해야 한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왔다는 한 자매님이 계셨다. 그분은 자신과 함께 본당에서 활동하는 어느 자매님이 갑자기 달라진 모습이 신기해 복음화학교에 오게 됐다고 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평소에 남의 말도 잘하고 화도 잘 냈던 자매였기 때문에 그 변화는 더 크게 와 닿았다고 했다. 처음에는 얼마쯤 가다 다시 본색을 드러내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다렸지만 일 년이 지나도록 그 자매님의 모습은 흔들림이 없었다고 했다. 나아가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다고 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그 자매가 궁금증을 안고 수 소문 끝에 찾아온 곳이 복음화학교였다. 그리고 궁금증을 안고 있던 자매님도 복음화학교 교과과정을 받으며 구원 받은 삶이 어떤 것인지, 복음적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씩 깨달아 갔다.

좋은 말하기, 친절하기, 화내지 않기,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배려하기, 화해와 용서하기 등 자신 안에서 고쳐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 천천히 변화해 갔다. 일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변화는 주변에서 먼저 인식했다. 집에서는 “요즘 당신 많이 변했어”, “엄마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봉사활동을 함께하던 사람들도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많이 부러워했다고 한다.

신앙은 생활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지금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희망을 갖게 됐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갖고 꾸준히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 복음 선포는 삶의 증거, 생활의 증거가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먼저 자신이 복음화 돼야 하듯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구체적 삶 즉,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생활의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단순히 선포만 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기적을 행하셨다. 직접 모든 것을 보여 주시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다. 우리 교회와 그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몸의 자격으로 그분의 권리와 의무, 사명을 구체적인 생활 안에서 실천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실제 피부에 와 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시작은 생활 안에서의 사소한 실천에서 비롯된다.

복음선포는 생활의 증거와 명백한 선포로 이루어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의 증거라는 측면에서는 자신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노력하지만, 명백한 선포의 실천에는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 복음선포, 즉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라는 분이 우리 인류의 구세주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선교의 방법은 여러 가지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연구한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은 1:1 선교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가 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느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선교를 하다보면 제일 먼저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디에서 오셨고, 왜 오셨고, 그분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명백한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음의 핵심진리 4가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게 하신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다. 하느님은 유일신이시며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인간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었다. 둘째, 우리 인간이 파멸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파견하신 것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계획에 반하는 죄를 짓고 본래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성이 파괴됐다. 인간은 파멸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느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럼에도 인간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 파멸에 직면하게 됐으며, 그 파멸을 막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셋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인간을

죄와 죽음, 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이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파견된 자로서 하느님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말씀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나라에 살도록 초대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초대해 주신 분이시다. 넷째, 예수님은 당신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복음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께 의탁하고 도움을 청하면 이 세상에서부터 복음적 삶, 구원적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느님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4가지 핵심진리가 우리가 전해야 하는 명백한 선포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명심하고 정리해 자신이 선교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전해야 한다.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핵심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요, 또한 믿음의 기초가 된다.

가톨릭교회를 잘 모르는 이들이나 편견을 가진 이들은 가톨릭은 '마리아 교회'라고 비난하곤 한다. 마리아 공경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마리아를 올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마리아를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마리아를 공경하는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흠숭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리아를 알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혈연관계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구원사업의 역사 안에서 마리아가 맡으신 몫, 다시 말해 당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으뜸가는 협력자라는 면에서 성모 마리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복음서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시는 분, 하느

님의 구원계획과 그에 따른 하느님의 제안을 받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응답하신 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나 하느님의 충만한 은총을 받아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분으로 소개한다. 이를테면 마리아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져온 하느님의 구원에 의해 온전히 구원받은 인간이라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의 마지막 부분인 8장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서 천주의 모친 복되신 동정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53~69항에 걸쳐 마리아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잘 정리해 놓았다. 성모 마리아는 복음화 사업에서도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갖는다. 성령의 짝이신 마리아를 통해 말씀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복음화의 주역이요, 마리아는 복음화의 모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도하심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며 하느님의 구원계획은 계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일치하는 것이다. 복음화의 중심에 있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성경이나 교회의 전통에 근거한 우리 신앙의 보화이다.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을 단순하고 완전하게 믿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을 받아들여셨고 인류에게 인간으로서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낳아 주신 분이시다. 또한 마리아는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아들의 구원사업을 뒷바라지하신 겸손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어떤 역할이나 직무가 주어지면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구세주의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겸손은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된다. 또한 마리아가 하느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순명하는 자세, 구원의 역사 안에서 묵묵히 진리를 실천하신 모습은 오늘날 복음화 사업에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모델이다.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겠다.

복음화라고 하면 선교라는 말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즉, 기존 신자의 재복음화의 선행도 포함된 의미다.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하자면 각자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험악한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인답게 살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다행히 하느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 당신의 자비와 사랑,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하느님의 은총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내려진다. 그런데 주관적인 입장에서 주변을 살펴보면 하느님의 은총에 차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한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나는 덜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왜 그럴까? 하느님의 은총은 모든 자에게 똑같이 내려지지만 신앙생활은 하느님의 은총과 더불어 우리 인간 쪽에서 부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를 해야 한다. 성사생활과 각종 전례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기도와 성경읽기, 공동체 생활과 봉사활동 등 신앙적 행위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행위와 더불어 그리스도적인 사상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생활과 직업생활 또한 일상의 생활에서 그 삶의 방법과 내용이 하느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내용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끊임없이 새롭게 바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자면 자신의 삶 안에서 잘못된 점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과감히 바꾸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 자신을 바꾸는 결단은 누

구에게나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믿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바꾸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다. 용기를 갖고 결단을 내려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하느님 은총의 폭은 그만큼 넓어진다.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는다고 느껴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신앙생활은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용기를 갖고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회개의 삶이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회개의 연속된 생활이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것에 그치면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다. 행동을 바꿔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럼에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잘못된 인식, 환경, 습관 등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많다. 그 장애를 스스로 발견하고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재복음화의 첩경이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조사해본 결과 가장 먼저 꼽힌 것이 게으름, 나태함이었다. 현대인들의 삶은 그 자체가 매우 바쁘고 또 복잡하다.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찾아 살아가는 게 무척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게으름과 나태함은 좀 의외의 결과였다. 바쁘고 정신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얼마든지 자기 시간을 낼 수 있고 또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신앙생활에 소홀했던 것이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한다. 신앙인도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이들

과 똑같이 일해야 한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가정생활, 대인관계, 자녀교육, 직업생활 등 모든 삶의 내용이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더해 신앙인은 이와 같은 모든 삶의 내용들을 그리스도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 사상으로 자녀교육, 인간관계, 직업생활 등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를 해야 한다. 기도, 성경읽기, 공동체생활, 봉사, 나눔, 선교, 전례생활 등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다. 이 많은 것을 소화해 내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충실하고 다른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남보다 덜 자고, 여가생활 시간을 아끼고 그래서 그 시간들과 물질 그리고 자신의 희생 등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 또 여러 가지 인격적 열매와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평화와 행복한 삶도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부지런한 삶을 통해 얻어진 열매 즉, 성실성과 책임감 등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신앙인들이 이처럼 부지런하게 살면서 그 삶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 당연히 비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줄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파견된 사람들이다. 특정한 사람만 파견 받은 것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자격을 지녔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즉, 복음전파의 사명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특정한 신분과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사명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받고 파견된 자로서 파견하신 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부지런한 생

활을 해야 한다. 자신의 재복음화와 복음선포는 부지런한 신자들만이 이뤄낼 수 있는 결과다. 누구든 깨어있지 못하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 가 ·

이 시대의 교육과 시대적 환경에서의 대세는 출세주의, 물질주의를 꼽을 수 있다. 선생님과 학생의 공통된 목표는 일류학교를 졸업해 좋은 곳에 취직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돼버렸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종교는 어찌면 욕구를 채우는데 필요한 수단에 불과할 지 모른다. 종교의 진정한 가치와 진리를 탐구하기보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만족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장 큰 문제는 인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 안에 신의 존재가 점점 그 역할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생각과 행동은 산업과 과학문명의 발전에 힘입어 갈수록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치우쳐 가고 있다. 또 사회의 각종 부정적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나 정신이 빈곤해지고 가치관의 부재로 혼돈의 사회가 됐다.

인간이 그토록 바라고 추구하는 '행복'은 물질 같은 세상적인 것으로 충족할 수 없다. 역사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준다. 권력, 돈, 명예 등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들은 너무나 많았다. 아무리 얻고자 노력해도 스스로의 노력뿐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행복'이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지만 얻지 못했던 '참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었다. 부유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행복하고 오히려 마음이 가난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제 새로운 인식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인식의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 사상을 쉽고 설득력 있게 전달해 새로운 인식으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고 삶의 목표나 행동이 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상, 즉 그리스도적인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도 세상 중심이 아닌 하느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산다. 행동 양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의 권력자들, 기득권을 갖고 있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모든 인간의 참 행복을 위한 것인지 가르쳐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행복을 희망하며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바꾸어 나갔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현생에서는 ‘행복’을, 죽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참 행복’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대다.

## 가

현대의 복음 선교 13항에서는 복음화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기쁜 소식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는 신앙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며 실천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복음화하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복음을 실천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인 ‘복음화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

양인들 개개인의 복음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복음회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돼 복음적 삶을 잘 살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시작은 신앙인들 개개인의 '회개'다.

현시대는 반복음적인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반복음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비복음적이고, 반복음적인 권위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집단적 이기주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신앙인들이라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회개를 위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한다. 우리는 일상에 치우쳐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다. 잠깐의 여유를 갖고 반복음적으로 살아온 것이 무엇인지, 본의 아니게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온 것은 아닌지 묵상해보자.

반복음적인 삶의 내용이란 사랑과 반대되는 미움과, 용서와 반대되는 단죄와 판단,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과 권위주의 등 인간의 기본적인 삶 속에서 깊이 뿌리박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서서히 악습을 고쳐나가자. 하느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화해와 용서, 관용과 자비 그리고 겸손과 섬김과 나눔 등을 실천해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생각과 삶 안에서 반복음적인 삶의 내용, 하느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회개란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당신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으신 하느님께서 어떤 경우에서든 자비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4, 17)는 말씀은 일부의 죄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종교적 백성이고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스스로를 선택받은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유대민족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유효하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이다. 우리 안의 낡은 것들, 불필요한 요소들, 특히 비복음적이고, 반복음적인 요소들을 버리고 과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화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지상과제는 교회를 통한 세상의 복음화다. 그 시작은 교회 구성원인 신앙인 한사람의 회개에서부터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하느님 백성 전체의 선교적 성격과 특히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전통을 확인하였고 선교 활동에 대한 평신도들의 특수한 기여를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신자가 이러한 책임을 함께 나눌 필요성은 비단 사도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문제만이 아니라 세례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권리와 의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례성사를 통하여 평신도는 그들 나름대로 사제이고 예언자이며 임금인 그리스도의 삼중 사명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처럼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하느님께 사도직에 위임된 만큼 개인으로서나 단체 회원으로서나 하느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수용되도록 노력할 전반적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선종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교회의 선교사명」17항을 통해 모든 하느님의 백성은 파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셨다. 이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평신도들에게 사도직이 있고, 그 중에 복음선포의 직무를 수행하는 예언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복음선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 복음선포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일에 그리 익숙하지 않다.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길 원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시련에도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미 참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체험했다.

무엇보다 교회 내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삶에서 보여 주자. 지도자들이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면 신자들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발적인 원의에서 비롯된 복음선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발적인 원의는 복음선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삶에서 자연스럽게 모범을 보이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가 진정으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 달라'는 것이다. 신앙을 갖지 못한 이들과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하면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등을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 복음선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참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자발적 원의가 필요할 때다.

현대의 복음선교 18항에서는 복음화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교회가 복음화한다는 말은 교회가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거룩한 힘을 통해 모든 개인과 집단의 양심, 그들의 활동, 삶과 구체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복음화를 설명하는 가장 알맞은 표현일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인류의 쇄신을 위한 복음화는 우리 자신의 내적인 변화와 그러한 삶을 통한 교회 공동체의 힘 있는 메시지가 모든 개인과 집단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내적 변화와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거룩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성령의 은총에서 온다. 성령의 은총 없이는 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의 은총은 우리 안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믿음,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순명과 봉헌의 삶을 살게 한다. 순명과 봉헌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이 새로운 삶 즉, 그리스도 사상에 의한 신앙적 삶으로 변하게 된다.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던 과거의 삶에서 그리스도 사상으로 새롭게 무장된 내적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복음선포는 성공할 수 없다. 복음선포자와 복음선포의 모든 활동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그 시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 의탁한 기도와 봉헌된 삶에서부터다. 하느님과 끊임없는 친교, 인격적 만남인 기도생활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감사해 한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게 한다. 우리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다. 끊임없는 기도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와 같은 기도와 생활실천을 통해 우리 자신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도 주님과 닮게 된다. 그리스도화 되어 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 성성의 길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한다. 기도생활은 많은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세상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오기 마련이다. 시간을 내어야 하고 때론 극기도 해야 한다. 마음도 잘 다스려야 한다. 희생 없이는 복음화 할 수 없다. 교회는 기도와 희생을 통한 신자들의 공동체인 것이다. 세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 기도와 희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느님께서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제물로 삼지 않으셨는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모습의 권위가 판 치고 있다. 교회 안에서조차 권위 또는 권위주의라는 단어들이 사용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또 다른 모습의 권위주의가 자리 잡은 것이다. 사전에는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해 ‘권력과 위세 또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권위를 내세우거나 중요시하는 주의’라고 설명돼있다. 이 두 단어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말일까? 물론 학문적 대가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그 학문을 배우는 제자들에게는 적합한 단어일지 모른다. 하지만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위와 권위주의는 어울리지 않는다.

세상의 복음화를 목표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그 자체로서 권위적이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어떤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주신 온유와 겸

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그분의 실천적 사랑의 삶을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마저 세속적 권위나 권위주의 형태를 닮아간다면 현대인들은 교회나 교회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마태 11, 29)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시며 당신의 이러한 모습을 닮을 것을 권유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 28).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다는 것이다. 그 구원으로 이 세상 안에서부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 삶의 연장으로 죽어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히 권위를 갖고 계셨다. 그러나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당신의 말씀과 삶을 통해 보여 주신 사랑을 통해 완성됐다. 또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룩하셨고 인간 스스로가 그분이 권위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권위를 행사하신 일이 없으셨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더욱 낮추시며 희생 제물이 되셨고 다른 사람들의 밥이 되셨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보다 우위에 있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겸손과 사랑의 실천적 삶만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한다. 기쁘게 살며 희생적 사랑 실천으로 세상 사람들의 명예를 메우는 건 어떨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보자. 오직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워보자.

혼란한 시대다. 자주 발생하는 천재지변, 여러 가지의 환경파괴, 그리고 인재에 의해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까지. 우리가 겪은 사건만도 이루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다. 그것뿐인가. 테러, 인종전쟁 등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사건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 없이 몇 년 사이에 우리들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사회와 이념의 갈등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닌듯 하다. 다종교사회 안에서 새로운 신흥종교나 신흥영성운동 그리고 세속주의로 기존의 신자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냉담률은 높아지고 미사참여율은 줄어들고 있다.

얼마 전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와 새천년복음화사도회가 공동 주최한 ‘21세기 한국교회의 복음화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있었다. 학자적인 입장, 사목자의 입장에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대안을 제시했던 자리였다. 이날 발제자들이 진단한 오늘의 한국교회는 매우 부정적 측면이 많았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에 안주한다면 미래 교회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발표한 내용의 요지였다.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이러한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선 사목 현장에서 사목을 담당하는 사제들은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자기 방어나 현실안주에 더 치우쳐 있다는 것이었다.

교회의 근본 소명은 복음화에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복음화에 대한 연구, 기획과 실천보다는 현실에 대한 자기 불감증에 걸려 안주하고 있다. 그 결과로 양적으로는 신자수가 늘어났지만 영성적으로는 빈곤해졌다. 신자들이 빈곤한 영성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곳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사이



비종교나 신흥영성운동 등에 빠져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교계의 신문들에서 그동안 복음화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여러 분석 기사와 대안 제시에도 그 문제들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은 없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구별 시노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그 결과는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한국교회에서 복음화 또는 새로운 복음화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 전이다. 그럼에도 아직 신자들은 복음화의 개념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동안 일어나던 선교의 열정마저 다소 식어가는 듯하다. 미사 참례율의 저조함과 각종 교회 내 단체의 활동들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진단해 그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 현실의 올바른 인식은 바른 진단을 할 수 있고 바른 진단이 나와 처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처방을 믿고 따르는 실천 의지와 행동이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구교우 집안에서 엄격한 종교 교육을 받고 자라온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은 어릴 적 주일학교를 가지 않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던 추억이 있을 것이다. 물론 필자도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주일학교에 다녀왔는지 물어보시는게 아닌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있는데 어머니는 조용하면서도 강하게 말씀하셨다. "방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두 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오히려 팔이 아파 슬며시 내리고 있을 때면 언제 보셨는지 다시 불호령이셨다. 필자에게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

는 기억이다. 그날의 사건 이후부터는 주일학교에 빠진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해본 일이 없다. 더군다나 주일미사를 빠진다는 생각은 평생을 두고 해본 일이 없다. 천주교 신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이 어릴 적부터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이 무엇을 실천하는 데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것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의 무감이든 자율적 마음이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을 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느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세상에 파견되어 오셨다. 어려운 사명이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그 사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 결과 인류는 죄에서 해방되어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결과다. 실천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

교회는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했다. 공의회에서 오랜 시간 수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공의회 문헌을 완성함으로써 새로운 교회상을 제시했다. 그리고 개별 교회는 이 문헌의 정신을 받아들여 교회 사목을 해나가고 있다. 한국교회도 최근 들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생겨나고 있다. 공의회가 끝난 지 45년이 지났다. 공의회가 끝난 지 10년이 되던 해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현대의 복음선교」에서 "공의회가 지향하였던 여러 가지 목적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20세기 인류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더욱 적합한 교회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다. 20세기 말 우리 교회에 제시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였던 바오로 6세

교황과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실천 의지가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천은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가

"예비신자 교리 시작일이 다가 왔습니다. 신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기도와 함께 더 많은 분들을 천주교로 안내해주세요." 신자라면 누구나 주일 미사를 통해 들어 봤을 강론 내용이다. 한데 막상 이 말을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한 신자들이 많다. 선교의 방법이나 선교에 필요한 훈련을 받아 본 일이 거의 없는 신자들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오래전 어느 교구에서 조사한 선교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본 적이 있다. 자발적 입교가 10명 중 7명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머지 3명 중 1명 반은 천주교회의 장례의식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 입교했고, 1명 반 가운데 반명은 친인척의 권유로, 반명은 결혼식 참석으로, 나머지 반명이 직접 선교에 의해 입교했다고 했다. 천주교회에 입문하는 동기가 직접 선교에 의한 것은 매우 미약하다는 지적이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선교는 인맥을 통해 이뤄진 경향이 컸다. 대체로 "나가봐, 좋아" 하는 식이다. 천주교에 대한 진리나 교리 또는 복음에 관해 질문이라도 하면 "가보면 거기서 다 가르쳐 줄 거야"라고 말하곤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계속 악순환일 수밖에 없다. 변해야 한다. 의식, 방법 등 모든 게 새로워져야 한다.

복음 선포는 생활의 증거와 명백한 선포가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다. 생활의 증거 면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삶을 보여 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지금 자신의 삶이 어떤 근거에 의해 현실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상대를 배려해 그 사람의 환경, 교육수준, 받아들이는 상태 등도 고려해야 하고 지나치게 신학적 용어나 상대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는 피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과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사전 준비다. 그리고 선포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확신 그리고 체험한 확실한 실례를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나친 논리의 비약도 안 되겠지만 적어도 선포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천주교회의 기본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한다. 일회적인 선교강의로 잘 훈련된 선교사가 나올 수 없다.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교회의 선교사명」에서 "만민 선교는 하느님 백성 전체의 본분입니다"(교회 선교사명 71항)라고 말씀하셨다. 더불어 모든 평신도는 세례로써 선교사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다. 교회현장과 선교교령에는 하느님 백성 전체의 선교적 성격과 특히 평신도 사도직에 관해 강조하셨다. 이제 평신도 모두가 선교활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신자들이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교회 구성원 중 교적에 등록된 청소년은 20대와 30대를 합쳐 전체 교우의 31%에 해당된다.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내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는 미미하다. 신앙에 대한 중요성은 물론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소속감마저 없다. 이들은

왜 교회를 등지고 있는가? 그 원인의 시작점은 가정이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학비를 벌기 위해 자녀와의 대화가 거의 끊긴 상태에서 일벌레가 되곤 한다. 반면 어머니는 아이들의 종교생활보다는 공부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적표가 주관심사가 된다. 공부만 잘하면 출세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란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교회에서 떨어진 청년으로 성장해 버린 이후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신앙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릴 적 주일학교 때는 그나마 본당 신부님이나 자모회에서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중·고등부 담당 신부님이나 사목회 청년 담당자 외에는 관심이 없어진다. 더욱이 본당 공동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도 별로 없다. 청년 스스로도 경쟁 사회 안에서 적응하기 위해 신앙생활보다는 현실의 삶에 더 집중하게 된다. 그렇다고 교회의 어른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고 이야기하거나 미래에 대해 상의할 수도, 할 사람도 드물다. 신앙 상담을 하고 싶어도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한다.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들 속에서 교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이니 청소년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지 걱정이 앞선다.

물론 청소년 사목은 통합적 사목이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일부 사목자들이 꾸준하게 연구하며 사목적 제안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풀기 힘든 과제다. 그만큼 세심하고 세부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청소년 복음화가 절실한 것은 청소년이 한국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담당 사제와 사목회 청년 담당 임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관심과 사랑이 부족해서다. 그들도 우리와 한 공동체이고 가족의 일원임에도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부모, 사제, 사목회 등 교회 공동체 모두가 나서서 관심과 사랑을 주자. 청소년들에게 먼저 다가서자. 그리고 그 관심과 사랑을 청소년들이 가슴 깊이 느끼게 해주자. 그래야 청소년들이 신앙을 체험하고 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다. 사소한 관심이 청소년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 수 있다.

근자에 청소년 복음화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교회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데 한국 천주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개신교에 비하면 부끄러운 모습이다. 개신교의 청소년들은 어릴 적부터 기도가 몸에 배어있다. 함께 모이면 기도부터 한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기도다. 이미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성당에 들러 기도하는 천주교의 청소년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청소년들에게 신앙은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한국 천주교회 청소년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성인이 되면 잘 하겠지라고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기에 안일하게 대처해 성장한 청년, 성인들이 지금도 교회를 떠나고 있다. 똑같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개신교 아이들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기도나 성체조배를 부담스러워할까? 하느님의 현존 의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 복음화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실재하시고 우리와 함

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청소년들이 예수님은 곧 구세주이심을 올바로 알고, 믿게 되고, 그분을 자신의 삶에 초대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한다. 자신이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아간다는 경험은 다른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나아가 부모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부모들이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삶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 청소년 복음화는 몇몇 전문가나 청소년사목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 신앙의 선생 역할은 교회가 해야 하지만 신앙의 실제 모델은 부모다. 신앙을 가진 모든 부모들의 재복음화를 통한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당에서는 잘 배웠는데 부모들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부모들에게서는 잘 배웠는데 교회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청소년들은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청소년 복음화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더욱이 현대는 다양한 세대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미 청년이 된 세대는 I세대, N, P, U 세대, 88만 원 세대 등 다양한 모습으로 불리고 있다. 이런 다양한 모습의 청년들을 이끌어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중요하다. 청소년기에 확실한 신앙이 자리 잡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복음화가 잘 진행되어야 청년 복음화 그리고 미래 우리 교회의 복음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시대 청소년들의 복음화를 위해 앞드려 기도해야 하겠다.

예수님께서서는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찬 율법교사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하셨다(루카 10, 25-28 참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측은지심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도 많은 환자를 고쳐 주실 때마다 측은하고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또 눈여겨 볼 장면은 강도당한 사람이 행여나 가는 동안 상처가 더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응급조치를 해주는 부분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염려스러워 함께 밤을 지새웠다. 자신의 모든 일정을 뒤로한 채 마음과 정성을 쏟았다. 이튿날 생명이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두 테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지불하고 필요하면 더 지불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떠났다. 강도당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정성, 돈을 썼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우월감에 빠지지도 않았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몽땅 내어 놓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우리는 흔히 신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 모범이란 나 자신만 정직하고 정의롭게 잘 사는 것만이 아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신앙인의 모범이다. 날로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육체적 깊은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이웃이 돼 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 이외에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웃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할 때, 예수 그



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랬듯이, 그리스도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보자.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들고 고통 받고 외롭고 아파할 때 위로 받고 치유 받고 용기를 얻고 그분이 함께 해주심으로 써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게 되지 않았던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사회 안에서 참된 이웃으로 거듭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복음선포는 생활의 증거와 명백한 선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웃 사랑의 실천은 우월감이나 동정심, 자기 위안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이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도 않고 떠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할 참된 이웃 사랑의 모습이다. 신앙은 생활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코린토에 있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봉사직으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먹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돌판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습니다(2코린 3, 3)"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분의 소개장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새겨진 소개장이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로부터 복음전파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파견되셨듯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 지역과 여러 분야에 파견된 그리스도의 외교관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전하셨고 그분께 보고

들은 것만을 전하고 실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분께 보고 들은 것만을 증거하고 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셨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치유를 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고 기도하며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화라고 하는 하느님의 구원사업이다.

하느님께서서 예수님을 파견하실 때 그 사명과 능력을 주셨듯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파견된다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무장시켜주실 것이다. 사랑이라는 무기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외교관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으로, 깊은 회개로, 용기와 확신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뿐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무관심 속에 버려진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안다면 머뭇거리릴 시간이 없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는 시대에 맞는 방법과 새로운 열정과 표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사랑의 마음은 사소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웃과 주변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창조적 사고를 통한 새로운 표현과 방법으로 다가가야 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복음화를 이끄시는 주역은 성령이시라는 것이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법이 아닌 개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복음화를 이룰

수는 없다. 파견된 모든 사람들은 성령과 친교를 통해 성령의 이끄심에 충직하게 따르는 종이 되어 한다.

## 2020

한국 천주교회는 1970년 이래 매 10년마다 100만 명의 신자가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총인구 대비 10%가 넘을 정도로 신자수가 증가한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며, 특히 한국 천주교회의 주보성인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 덕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자들의 선교 경험 또는 선교에 대한 열정은 개신교에 비해 다소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한국교회에서도 새 복음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부족하지만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여러 연구와 실천들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2000년대로 접어 들면서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께서는 '2020운동'을 펼치자는 사목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까지 총 인구 대비 20%까지 신자수를 늘리도록 선교에 올인하자는 뜻에서다. 진정한 의미의 선교, 복음화라는 차원에서 정진석 추기경께서 말씀하신 2020운동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돼야 할 때다. 신자수만 늘어나는 것이 선교의 본질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는 만큼 교회와 사회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야 진정한 선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선교 혹은 새로운 복음화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는 전국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을 한데 모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각자의 경험이나 지식 등이 한데 모여졌을 때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방법이나 주장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연대를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복음화에 불을 지필 수 있는 큰 틀이 세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

된다. 둘째, 현장의 경험을 뒷받침하는 신학자들도 함께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전문성과 함께 이론적 뒷받침이 함께해야 하므로 전문가들로 형성된 연구, 자문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 셋째, 10년을 나눠 몇 년 주기로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선교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의식 부족, 교육 부족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년의 계획을 세워 교구별·본당별로 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교육의 성과, 목표달성 등을 분석하고 다음 단계의 교육을 통해 그 몇 년 동안 신자들이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신자들의 선교활동을 독려하고 선교활동의 구체적 결과와 선교를 통한 변화를 분석한 후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것들을 추가로 연구, 교육을 시키는 등 신자들이 선교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 복음화의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2020운동이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더 분발해야 한다.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교회에 위임된 구세주 그리스도의 사명(Redemptoris Missio)은 아직 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강생 제이천년기를 마감하며 인류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에서 보면, 이 사명은 여전히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 수행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을 선포하도록 재촉하십니다." (교회의 선교사명 1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회칙 '교회의 선교사명'에서 말씀하신 '선교의 절박함'이 필자의 마음에 크게 와 닿은 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2000년이 되었음에도 아직 전 세계 인구의 절반도 그리스도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 됐다. 그때부터 복음화에 온 힘을 다해 지금까지 달려 왔다.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얼마나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마는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화의 필요성을 외치고 신자들의 재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시켜왔다. 그 결과 그동안 2만여 명에 가까운 신자들이 복음화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복음화에 대한 필요성과 선교활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큰 열매에 감사할 따름이다.

엄격한 의미로 교회는 선교를 위해 생겨난 공동체다. 선교는 누구나 해야 할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근본 소명이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자들은 친교의 공동체 모습도 지켜야 하고 사회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밖에도 환경, 생명 존중 등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이 신자 개개인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 모든 신심, 활동 단체에서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선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신자 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새겨진 기쁜소식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 인격에 영향을 줘야한다. 그래야 그 말씀에 따른 삶인 이웃 사랑과 생명존중, 환경 사랑 등을 실천할 수 있다. 복음 선포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복음 선포는 교회적이고 그리스도적인 일이다.

2020년 한국천주교회 신자들이 인구비율로 20%를 넘어서게 하려면 각 개인뿐 아니라 모든 신심운동, 단체들의 목표가 복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각 개인과 단체는 교회의 근본 소

명인 복음화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 유기적 협력을 해야 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고 그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강림으로 새로운 힘을 갖고 뛰쳐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들이 되었듯이 그동안 우리 안에 축적된 영적인 힘을 갖고 밖으로 눈을 돌려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서 드러나신다. 교회의 구성원인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때 그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사랑을 나누는 친교는 교회의 본모습이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구체적으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러한 친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교회헌장 1항)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적 친교는 결국 선교적이며, 선교의 결과를 낳게 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사도적 권고인 「평신도 그리스도인」 32항에서 "친교와 선교는 서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교호 작용을 하며, 서로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기에 친교는 선교의 원천이요 결실이며 친교는 선교적이고 선교는 친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복음화의 원리가 무엇이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친교란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닫고 하느님과 일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신 성령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삼위일체, 서로의 일치와 사랑을 통해 보여주신 인류 구원의 계획에 그리스도적인 사랑 안에서 자신을 봉헌하고 참여함을 뜻한다. 이것이 복음화의 소명에 불림을

받은 모든 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영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근본 소명인 ‘복음화’ 사명에 참여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일치해야 한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일치가 있어야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실천할 수 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일치는 모든 신앙인들이 무엇보다 희망하는 것이고, 이루어야 할 목표다. 그분과의 일치와 친교가 있어야 그분을 닮을 수 있고 그분을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면 먼저 복음선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서 관계 즉, 친교를 통해 그분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닮아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깨닫게 된다. 그 십자가를 통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고 점점 믿음이 커나가게 된다. 이러한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의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최상의 신앙 행위다. 완전하고 진실한 사랑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서만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교회가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라고 해서 신자들끼리만 친교를 나눈다면 그 안에 하느님은 드러나실 수 없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의 실천 행위를 통해서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삶이 기쁨으로 드러나야 한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우울한 표정으로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 그것만큼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없다. 이들은 또 기쁜 소식을 전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대상은 대부분 삶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있거나 또는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외면당한 사람들과 소수이지만 자신들의 삶을 울타리 쳐 놓고 겉으로는 우아하게 살고 있지만 한없는 고독 속에 외로워하는 사람들 등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들에게 신앙을 증거하고 그 증거 속에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삶 속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삶으로 신앙 안에서 기쁨의 삶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 현대의 우리 신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도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후 자신의 화려하고 품위 있던 과거는 어리석고 가치 없었던 것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난 후의 새로운 생활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를 고백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오로는 모든 신자들에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쁘게 살 것을 당부하셨다. 또한 자신이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 고생하는 중에도 필리피 사람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끊임없이 기쁘게 살 것을 요구하고 격려하고 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십시오.’(필리피 4,4) 그것은 바오로 자신이 받아들이고 또 전하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자신의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다.

복음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미 이 기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 복음은 이러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빛이요, 희망이다. 어둠 속에 살다 빛의 세계로 나온 사람들은 빛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안다. 어둠 속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빛의 고마움,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로서 빛을 향해 나오는 길을 알고 있다. 이들은 빛 속에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증언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참 기쁨과 행복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일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구원적 삶을 보여주어야 하기에 신앙인들에게 힘든 일이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선교하고자 할 때는 더 그렇다. 증언적 삶을 고백하는 명백한 선포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그 증거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길 요구한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선교하는 것은 먼저 복음화된 사람들에 의해 복음 선포가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한층 더해질 수 있다. 이들은 이 세상의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왜 복음에 담겨져 있는지 사람

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줄 수 있는 ‘복음화의 침병’이라 할 수 있다. 신앙은 주관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신앙적 행위를 통해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다.

복음화학교를 졸업한 한 형제분의 이야기다. 그분은 졸업 후에도 끊임 없이 새 학교 개강 때가 되면 여러 형제자매들을 모셔오곤 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갔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 그분은 계속해서 신자들을 복음화학교로 이끌었다. 한 번은 그분이 모시고 온 분들에게 왜 복음화학교에 오게 됐는지 물었다. 그들은 "복음화학교로 안내한 형제의 모습이 너무 변해 어디서 무슨 교육을 받았기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왔다"라고 했다. 그 형제는 원래, 성당에서도 늘 불평불만이었고 교만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뒷짐만지고 바라보던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새벽미사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겸손해지기 시작했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봉사하는 일에는 힘들어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갈까하고 바라보았다고 했다. 그분의 솔선수범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됐고 주변인들도 함께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분께 인도된 많은 형제자매들은 현재에도 복음화학교에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따르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리고 이들도 서서히 변화해 나가고 있다.

이같이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곤 한다. 복음화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상을 갖고 행동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회개하는 삶을 통해 즉, 내적 쇄신을 통해 그 삶의 내용과 방법을 그리스도 사상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런 삶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이같은 삶이야말로 현대적인 순교자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대는 삶을 통해 증거하는 새로운 순교자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 순교자적인 삶을 보여 줘야하지 않겠는가.

"성모님께서서는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 묵주기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 지금 온 세계 가톨릭 신자는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단다." 어릴 때 왜 묵주기도를 계속 반복해야 할까 의문을 갖고 있던 중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사실 어렸을 때에는 의미도 잘 모른 채 가르쳐주는 대로 성모송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묵주기도였다. 당시로서는 로사리오기도는 그저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 바치는 기도고,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그 기도의 효과가 좋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보다 묵주기도의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순간이 찾아왔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깃발이 내려지는 장면을 봤다. 당시에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갑자기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쳐왔었지. 그 기도의 결과구나. 성모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느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당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과 변화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개입하신다면 불가능도 가능한 일로 바뀔 수 있다는 확신에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렸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자들의 묵주기도는 무엇을 위해 드리고 있는가? 이미 러시아는 회개하고 공산주의는 막을 내렸다. 이념전쟁도 거의 끝났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지식과 경제, 새로운 사상 등과 싸우며 새로운 복음화를 향해 나가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기도하는데 묵주기도보다 좋은 기도가 어디 있는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먼저 우리 자신과 교회의 내적 쇄신을 위해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통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 개인과 단체 각종모임과 행사들에서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해야 한다. 나아가 전 교구,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복음화를 위하여 묵주기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자. 개인과 단체 혹은 교구에서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모님께서도 우리들의 이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 아니 이미 우리 모두에게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로사리오기도를 바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세계는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꾸준히 드린다면 세계는 반드시 복음화 될 수 있다.

새로운 복음화는 교회의 내적 쇄신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큰 목표를 갖고 있다. 교회의 내적 쇄신은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그중 우리 스스로 많은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점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 1970

년대 천주교 신자 수 100만 명 시대에는 미사참여율이 70% 이상이었다. 그러나 지금 각 본당의 미사참여율은 교적에 있는 신자 대비 30% 내외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고, 미사에 나오지 않는 나머지 약 70% 중 대부분은 냉담신자다.

냉담신자의 변명은 수없이 많을 수 있다. 과거에 냉담한 경험이 있는 어느 한 형제는 이렇게 고백했다.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해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후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는 데까지도 많은 공을 들였으며 신자가 된 이후에는 자부심을 갖고 성사생활과 미사 참여에 충실했는데 어느 순간 ‘왜 내가 이런 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니 별로 바뀐 것도 도움 받은 것도 없다는 생각에 점점 미사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시간에 취미생활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노력을 기울였더니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 점점 냉담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그 당시에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뒤늦게서야 자신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이해나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냉담의 길로 빠져들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냉담의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것이 바로 신앙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무관심이다. 세례를 받은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느낀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초기 교육단계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구원관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후 확신 없는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소한 이유로 냉담하게 된

다는 것이다. 때문에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은 새로운 복음화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속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선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냉담신자 개개인에게는 매우 크고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다.

한쪽에선 끊임없이 새로운 신자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입교한 이후 빠져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선 대체로 관심이 없다. 그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기 때문이 아닐까? 함께하던 가족이 힘들고 아파할 때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 교회공동체 안에 언제부터인가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 아마 사랑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일 수도 있다. 신앙공동체가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이어지기 위해선 새로운 복음화의 차원에서 새로운 방법과 표현과 열정이 필요하다.

"진작에 이런 공부를 했더라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신자들 중 냉담을 하다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학교에 오게 되었거나, 또는 아무 의미없이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 오던 분이 가족이나 본당 신자들로 부터 반강제적으로 이끌려 오셨던 분들이 일정기간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의 참의미를 깨닫고 난 후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분들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친구와 교우들을 찾아가 그들이 경험했던 냉담시기와 하느님을 만나고 참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들을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냉담의 이유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신앙의 신비를 맛보고 믿음을 되찾은 후의 생활은 모두 행복한 삶으로의 전환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느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변함없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방법론적인 길은 여러가지이겠지만 그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울타리 안에서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삶에 대한 자신 스스로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누가 잃어버린 양에게 그 길을 인도하겠는가? 그것은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이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몇몇 교회의 지도자들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세상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찾아나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물론 현재 신앙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참기쁨을 맛보며 구원의 확신과 구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신앙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여 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의 길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파견해야 한다. 그리고 신앙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확고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즉 신자들의 재복음화가 첫 번째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고 동시에 두 번째로는 재복음화된 신자들의 파견을 위한 구체적인 훈련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임에도 빠른 시일 안에 그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 해야만 실천적인 면으로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들의 재복음화와 복음선포자로서의 훈련의 실질적인 효과는 대단하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사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화학교 등이 더욱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0년 12월 7일 반포한 회칙 ‘교회의 선교사명’ 33항에서 오늘날의 세계를 바라보며 복음화의 관점에서 세 가지 상황으로 구별했다. 첫째는 아직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모르거나 또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신앙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민족이나 집단들에게 선교하는 경우다. 이런 곳에서의 활동을 고유한 의미의 외방 선교라 부른다. 둘째는 적합하고 견고한 교리 구조를 갖추고 신앙과 생활에 열성적이고 자기 지역에 복음의 증거를 확산시키면서 보편적 선교 의무를 느끼는 교회공동체에 관한 경우다. 여기서의 교회활동은 주로 사목적인 것이다. 세 번째는 앞에 말한 두 가지 형태가 아닌 중간 상태를 말한다. 특히 그리스도교 전통을 가진 나라들과 일부 신생 교회들 중에는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렸거나, 때로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서 유리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현대 세계의 복음화의 관점에서 새로운 복음화 또는 재복음화가 요청되는 경우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 가지 관점 중 어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아직도 한국은 선교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에서 생각할 때 불과 200년이 조금 넘는 신생 교회이고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유리된 생활 즉, 신앙이 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복음적 삶을 통한 문화를 형성하는 일에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선교 즉, 복음 선포와 동시에 재복음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외방선교와 새로운 복음화, 재복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선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지는 결과라면 재복음



화를 위한 각종 교육과 사목방향이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복음화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선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계획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상황에서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선교는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기 확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복음이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주었고 복음의 가치가 자신의 삶 중에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선교를 할 수 있다. 선교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1 선교다. 1:1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두 가지 문제에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예수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하느님의 존재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은 인간들의 삶과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신자들의 재교육과 재복음화는 그래서 선교는 물론 복음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직접 선교란 여전히 어색하다. 방법도 모르고 용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단한 내용을 배우고 실습해 본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선교다. 선교가 힘들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용기가 없기 보다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전달해야 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의 핵심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곳 저곳에 불러 다니면서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계층의 신자들을 만

나게 된다. 그 중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핵심적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상당수 있다. 그러한 분들에게 복음의 핵심에 관하여 설명해 볼 것을 권하면 대부분이 주저한다. 용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용기있게 말 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성당에 나가도록 권면할 때 주로 "한번 나가봐. 참 좋아"라는 정도의 말을 건넨다. 그러다가 상대가 왜 좋은 것인지 신앙에 관해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나가면 다 가르쳐 줘"라고 교회에 그 책임을 돌린다. 자신이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이 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례성사로서 선교사가 된 모든 신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선교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 우리는 언제라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선교는 시간과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비신자들이 먼저 다가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신자들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오래전 아시아의 복음화학교 책임자들이 싱가포르 신학교에서 모여 워크숍을 한 일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혼자 대표로 참석했다. 일정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 참석자 전원이 함께 파견미사를 했다. 그런데 미사를 집전하시던 신부님이 강론시간에 갑자기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Andrew, What time is it, now?" 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을 했지만 '아마 시간이 궁금하신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 얼른 시계를 보니까 오후 5시였다. 그래서 5시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곳에 참석했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한바탕 웃는 것이었다.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 내 시계가 잘못 되었나 1시간 시차를 돌려놓지 않았나 생각했으나 내 시계는 정확하게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나는 그분들이 왜 웃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에게 듣

기를 원했던 대답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신부님이 나에게 한 질문은 "지금 무엇을 하는 시간인가요?"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지금은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시간이다"라는 대답이었다.

복음을 전하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나 때로는 가까운 사람보다 멀리 있지만 필요한 사람도 있다. 그들이 멀다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선교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간이다.

재복음화로 선교에 모범을 보인 한 신자의 이야기를 소개해 볼까 한다. 아파트로 이사한 자매님이 있었다. 이분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집을 방문해 작은 일거리도 도와주면서 친절함 아줌마로 점점 소문이 났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나눔도 잘한다는 말이 이어졌다. 늘 한결같은 모습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늘 기쁘게 살 수 있냐"고 물었고 그 자매님은 "천주교 신자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라고 답했다. 그때부터 이웃들은 그 자매를 따라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고 33명이 천주교에 입교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분은 복음화학교에서 복음선포는 '생활의 증거'와 '명백한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이해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 이웃에게 다가갔고, 인간적인 신뢰를 쌓기 위해 친절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기쁜 모습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다. 늘 한결같은 모

습을 보이니 상대방에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체험을 나누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천주교에 입문하게 된 것이었다. 물론 이웃과 관계를 맺는 모든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종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종교는 상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삶의 이야기를 듣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상대가 천주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이면 분명한 어조로 자신이 배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며 천주교에 입문해 볼 것을 권했다. 이렇듯 재복음화한 신앙인 한 명은 선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 신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아쉽게도 복음 선포는 교회의 소명이고 신자들의 소명임을 깨닫고 있는 신자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이미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선교사로 파견됐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구원에만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경향이 대부분인 것 같다.

복음화는 교회의 근본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 이유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 즉, 선교활동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 선교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 신자들은 예비신자를 입교시키라는 권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비신자 교리반을 채우려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이 모든 과정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잘 준비된, 다시 말해 재복음화된 신자들에 의해 행해진다면 분명 달라질 수 있다. 지금보다는 훨씬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신자들의 재복음화 문제다. 신자들이 자신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죄와 죽음과 악으로부터 해방돼 구원받은 삶을 살아간다면, 또한 복음으로 무장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선교는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복음화의 전략으로 대체로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가 모든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화’다. 현대세계는 다양한 가치관, 사상, 문화, 종교들이 존재한다. 다원주의, 다원사회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있다. 복음화는 이처럼 모든 것이 다양한 사회 안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줄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극대화’다. 다양화가 모든 상황과 내용들이 복음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 그것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화와 극대화가 활용되고 있는 좋은 예가 바로 언론과 인터넷이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현대에는 다양한 정보 매체가 생겨났고, 그 중 언론과,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음화 활동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복음화의 세 번째 전략은 ‘동질화’다. 동질화란 상대와 같아지는 것을 뜻한다. 다양화와 극대화를 통해 모든 복음화 활동을 활용하더라도 동질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최 측의 의도가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상대가 나를 외계인처럼 바라본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네 번째는 ‘협력체계’다. 다양한 사회 구조와 전문화된 사회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구석구석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서로 서로 유기적 협력체계를 이루어 복음화를 진행해 간다면 그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특히 우리 교회 구성원 안에 다양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전문직에 속해 있는 많은 신자들이 복음화라는 대명제 아래 각자의 전문지식과 기능들을 세상의 복음화에 초점을 맞춰 나간다면 한국의 복음화는 그리 어려운 과제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복음화 전략들이 있지만 이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신자 개개인이 복음화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알고 강한 실천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그 필요성을 강조해도 소귀에 경 읽기밖에 안 된다. 복음화는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또 특수한 사람들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의무요, 권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명이다.

사도 바오로께서도 "사실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1코린 9, 16)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사도 바오로께서는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로마 10, 4-15)라고 말씀하셨다. 이렇듯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선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파견되신 분이시며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임을 믿어 죄와 죽음, 악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뿐이다.

요즘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언제부터인지 조용해 보인다. 화려하게 장식을 했던 트리들도 이제는 몇몇 백화점 건물이나 교회에서나 볼 수 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 진심으로 구세주 오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줄었기 때문일지 모른다.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세상 것에만 치우치는 사회일수록 종교와 신앙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법이다. 온 세상이 축제처럼 여겼던 구세주 탄생일은 이제는 한 종교의 지도자의 탄생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나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었던 지난 2000여 년의 세월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시대는 확실히 변했고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표현과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복음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열정이 솟아나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성령께서 모든 은총을 주신다.

새로운 복음화의 주역은 성령이시다. 성령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여 그 시대상황에 맞게 지혜를 주시고 그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열정을 주신다. 성령께 이끌리지 않고는 새로운 복음화는 전진할 수 없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은 계획이라면 실천되어질 수 없다. 하느님의 구원사업은 하느님의 방법과 하느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느님에 의한 인류 구원 사업의 절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인류 구원의 완성이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삼천년대를 향해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교회는 이제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복음화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아시아 복음화의 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한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아시아 복음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멀리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탄생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다 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안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한다면 그리고 그분에 의한 구원의 확신이 정리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2011년 한국교회의 화두는 '새복음화'다. 어느 특정 교구 할 것 없이 한국의 거의 모든 교구장님의 2011년 사목교서의 핵심은 '새복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세계교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남겨준 유산인 '새복음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음화의 방법이나 내용, 전략 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새복음화'가 이 시대의 절체 절명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새복음화'의 새로운 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계서는 '새복음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열정, 새로운 표현,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새복음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쌓여 있는 낡은 습관, 가치관, 이념 등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새복음화'는 마치 새로운 봄을 맞이하며 새롭게 정리하고 단장해야 하는 것이다. 새 생명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려면 과거의 세포는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다. 새로운 복음화도 마찬가지다.

'새복음화'는 새로운 열정이 생겨야 할 수 있다. 과거 우리 교회가 해오



던 선교의 고정관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 틀이 바뀌어야 가능하다. 복음화란 선교라는 제한적 의미를 뛰어넘어 보다 폭넓은 의미가 함축적으로 표현된 용어다. 따라서 교회가 ‘새복음화’를 사목목표로 내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선교활동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만들자는 뜻이다. 현재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상황, 사상 등을 복음을 통해 내적으로부터 변화시켜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전달이 빨라지고 있다. 거의 모든 세계 사건과 상황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다. 정보의 전달 방법과 함께 표현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이와 같은 다양한 표현과 방법들도 관심을 갖고 복음화란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활용해야 한다.

급변하는 현대세계의 환경 안에서 교회가 ‘새로운 복음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적용시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소명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재의 우리를 다시 점검해 보고 앞으로 ‘새복음화’를 향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복음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복음화’에 참여해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가 필요하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요란한 구호로 끝날 수 있다. 봉헌된 삶, 그리고 헌신적인 투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선행돼야 할 일은 ‘새복음화를 위한 기도운동’ 전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뽑힌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고 뽑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 주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그것도 그분의 특별한 사랑에 의해 선택되고 뽑혔다고 생각한다면, 개인의 영광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되어 뽑혔을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많은 부족함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으로 죄와 죽음과 악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 즉,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즉 우리가 뽑힌 것은 우리를 파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악한 세상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나약해서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증인이요, 선포자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되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다리가 되어 주셨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스스로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우리를 세상에 파견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 즉 사명을 주어 세상에 우리를 파견하셨다. 그 사명이 복음 선포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선포하는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정의를 드러 내시고 우리 모든 인간을 참 행복의 길로 초대하시는 것이다.

복음 선포는 인간을 행복으로 초대하는 구체적 행동이다. 그 행복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행복이다. 세례로 신자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파견된 선교사 다. 새로운 복음화는 이러한 기본적인 그리스도 사상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 선포는 먼저 복음화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우리 자신들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적 삶을 잘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친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된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고 복음적 삶의 증인일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해야 하겠다.

보편교회에 주어진 모든 사명과 그 실천은 성령의 작용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복음선포 역시 성령의 활동 없이는 그 안에서 구원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잘 준비되고 잘 짜여진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선포하는 당사자나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 안에서 성령의 활동이 없다면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가 그 안에서 작용하여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성령께서는 무력감 속에서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내리시어 사도들 안에 새로운 용기와 열정을 갖게 하였고 그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과감한 행

동들을 하게 하셨다. 그뿐인가? 어부 출신의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 그날 3000명의 신자가 늘어나게 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이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과 함께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다.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현존 의식을 깨우쳐 주시고 그분의 사상과 은총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시다. 성령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믿음의 확신도, 은총의 감사함도, 하느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 안에서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성령께서는 교회가 하느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활동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2000년 역사의 교회는 그동안의 많은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느님의 뜻을 구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 성령께서 활동하시지 않는다면 제2차 바티칸공의회라는 우리 가톨릭교회의 획기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공의회의 결실인 새복음화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는 새복음화를 시작하며 먼저 자기 쇄신을 촉구했고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가졌다. 그러한 교회는 자기 쇄신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헌신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등 교회는 현대 사회 안에서 소외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편에 서서 하느님의 정의를 드러내며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나아가 교회는 인간의 평등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어느 뛰어난 개인이 이 모든 일을 개입하고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성령께서는 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통해 새로운 세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신다. 복음과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지금까지 어느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철학이나 교육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 참 평화와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계신 것이다.

새로운 복음화는 모든 인간의 희망이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인류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느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 새로운 당신의 구원사업인 새복음화를 통해 우리 인류 안에 당신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고 계신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류가 현대 사회 안의 온갖 부정과 부패 또는 제도적 모순에 혼란을 느끼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참인간의 모습과 길을 제시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유일한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길을 보여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때문이다. 새로운 복음화는 모든 인간에게 희망을 선물로 줄 수 있어야 한다. 비록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들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지만 유한한 인간과 함께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복음 선포자, 새로운 복음화에 자신을 봉헌하고 헌신하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철저히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께 순응하는 삶

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복음화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구원사업이 하느님의 방법대로 진행되고 그 열매를 하느님께서 손수 맺어 실 수 있다.

새로운 복음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속도를 늦춰서도 안 된다.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일 년이 되듯이 매순간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그 열매가 빨리 맺어질 수 있다. 새로운 복음화는 분명한 목표가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이며 잘 준비된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실천해 가면서 그 내용을 분석, 연구해 늘 새로운 창조적 사고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타성에 젖어드는 과거의 전철들을 밟지 않는 길이다.

새로운 복음화가 짧은 시기에 이뤄질 수 없기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먼저 실천하다보면 복음화의 시기는 오히려 점점 늦어지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사목 방향과 그 사목 방향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구성체가 필요하다. 누가 그 일을 추진하든지 자신의 평생 과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해 간다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대를 이어 평생의 사업으로 추진해 갈 때 새로운 복음화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서둘러 될 일도 아니지만 늦추어서도 안 되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새로운 복음화다.

선교는 하느님의 원천적 사랑의 실천이자 표현이다.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파견하신 것은 인간을 당신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결단이라 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을 하느님 성에 참여시키기 위해, 즉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구약의 오랜 준비 끝에 끝내는 사랑하는 성자를 이 세상에 파견 하신다." (선교 교령 3항) 성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파견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현대의 복음 선포자들도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파견의 임무와 사명, 그리고 그분의 보살피심과 함께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며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증거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문명과 문화가 지금처럼 발달된 시대를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 본 일이 없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간이 이 세상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계신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인간들을 초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선교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한다면 그 안에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게 되고, 증거와 실천의 삶을 통해 선교사 자신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선교가 교회 입문을 위한 단순한 수단,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교는 교회의 신자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도 그 사랑과 은총 안에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선교자는 일차적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이 기쁘지 않다면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이다. 그러기에 선교사는 확신에 찬 말씀 전달과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아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느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기 위한 기도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주어지고 그분이 베푸셔야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체험한 이들은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기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충만해진 선교사 한명 한명이 '새 시대 새 복음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복음 선포의 방법 중 가장 선호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는 개인의 자질과 영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원칙을 상기해야 한다. 첫째, 쉽게 해야 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단어 사용과 함께 단문 형태의 간단한 형식을 사용해 듣는 사람들이 쉽고 편안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명확하게 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할지 그 메시지를 충분히 익히고 그 내용 전달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복음 선포자가 전달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 교회의 정통 교리이자 핵심이다. 행여 기교를 부리려다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방향이 틀릴 수도 있다. 복음 선포자는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어떤 형태를 빌려서든 그 내용에 정확한 메시지를 담아서 전해야 한다.

셋째, 전달 내용이 듣는 사람들에게 동의와 공감을 얻으려면 효과적으로 전해야 한다. 기승전결이 잘 구성돼 있어야 하고 그 전개 과정에서 특별히 강조해야 할 것, 때론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등 세심하게 준비하고 전해야 한다. 그래야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듣는 사람들안에 구



원 사건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종교적 관심과 동기를 부여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음 선포자는 깊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잘 이끌려야 한다. 그래야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

넷째, 복음 선포자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확신을 갖고 확신 있는 어조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 가령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마 그럴 것이다" 등의 자신 없는 표현은 상대에게 확신을 심어 줄 수 없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복음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신과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힘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신이 확신에 찬 말씀이 아니면 누구도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기쁜 소식 자체에 대한 증인이다. 이들은 자신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 인식·삶의 전환을 가져왔고 그래서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겪게 되는 온갖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확신이 없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을 수 없고 기쁨 또한 없을 것이다. 형식은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 낼 수 없다. 하느님을 만나고 복음을 살아본 사람만이 참 기쁨을 알게 되고 또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

효과적인 증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성경의 예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예수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왜 예수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지 분명하면서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증언들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모델이 된다.

우리가 증언을 통해서 해야 할 내용들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 안에 들어오셨고 또 그분의 개입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었는지에 관해 증언하는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 쉬우면서도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능한 듣는 상대의 수준,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생활의 증거는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상대와 언제나 동질화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상대에게 지루함을 주거나 불필요한 내용들을 늘어놓아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증언은 짧고 진실하며, 사실적이어야 한다. 과거는 어떠했고 현재는 어떻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사실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혼동을 할 수 있다. 증언을 할 때는 상대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해서 준비해야 한다. 생활의 증거는 스스로가 충분히 준비돼야 하며, 이와함께 증언하기 전에는 나누고 비평해줄 사람과 함께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 이러한 증거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이론 즉 성경이나 교리적인 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사도 바오로는 간단하고 쉽고 명백하게 확신을 갖고 말한다. 이는 필리피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벤야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이 짧은 내용의 증언으로 자신의 출신, 신분, 그리고 종교적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라는 부분에서는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라는 부분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기 위해 부정적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복음화에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오로 사도처럼 예수그리스도의 존재와 자신의 회심 이유를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교회는 복음선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들은 개인이나 집단들이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만드는 것을 복음화라고 말한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복음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새로운 인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복음화는 내적 쇄신을 통한 자기 복음화에서부터 출발하여 중요한 핵심인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사랑을 교회 스스로 체험하여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쁜 소식의 전달자이며 체험자인 교회는 자신이 선포하는 거룩한 계시인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복음화의 과제요 목표다. 그러나 현대세계의 다양화와 전문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또는 지역적 문화와 생활수준의 차이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복음화의 활동 방법이 달라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교회의 선교사명에 명시하기를 현대 사회의 현실과 복음화의 임무에 따라 세 가지 상황을 구별해 말씀하셨다. 첫째가 외방선교이고 둘째가 사목적 활동이고 세 번째가 새로운 복음화 또는 재복음화라고 말씀하신다. 외방선교는 고유한 선교활동으로 예수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사목적 활동은 견고한 구조를 잘 갖춘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복음화는 지역 복음화, 사회 복음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세 번째의 새로운 복음화 또는 재복음화는 두 가지의 분명한 다른 상황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먼저 재복음화에 관하여 말한다면 복음화의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것은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복음을 잊어버린 공동체 또는 복음의 메시지가 왜곡되는 공동체에 필요한 말이다. 이것은 세속화나 무신론의 영향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왜곡되거나 또는 복음의 참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복음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통한 참가치를 알고 받아들여 복음을 통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재복음화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복음화란 무엇인가? 새로운 복음화란 그리스도교의 근본 가치들을 받아드리고 그리스도교의 문화를 뿌리 내리고 있지만 종교에 대한 무관심, 세속주의, 배금주의로 인하여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교회에 필요한 복음화다.

현대 사회가 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생겨난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양식이 바뀌면서 마치 이 세상에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생활을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무신론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간의 삶 자체를 하느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이미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살던 많은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곳에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유럽의 교회들이다. 이제 유럽의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화는 절실히 필요하다. 유럽의 주교님들은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유럽인들은 무엇보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거나 또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에 크나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도록 돕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증거에 하느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런 증거들에 의해 그 말씀이 확인되어야 한다." (유럽 주교대의원회의 선언문 중에서)

복음을 말씀만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전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특별히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유럽인들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의 증거를 통해 복음을 느끼길 원한다는 것은 교회가 현재 복음적 증거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시대의 징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시대적 복음화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자문해 봐야 한다. 외방선교, 재복음화, 새복음화 모두가 절실히 요청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된 선교적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되고 파견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증명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참 평화와 행복, 나아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야만 한다.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려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원리를 올바르게 알고 믿고 따를 때에만 가능하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하느님의 구원 사업 의미와 그분의 사랑을 통한 구원적 삶의 구체적 증거를 드러내 보여야 교회 본연의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과 분리돼 살아갈 수 없다. 오히려 이 세상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간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감동을 주고 변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선교적 공동체인 교회의 본연 임무이다.

현대인들은 매우 복잡한 사회 구조 안에서, 다양한 문화와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조직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교회 공동체 일원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사회 안에서 여러 분야와 계층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적 삶의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희망이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현세적 고통 속에서 참 기쁨과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삶, 희망적인 삶, 감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또한 그들을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에 초대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느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으며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를 얻게 해주셨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지금의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원천적 사랑에서 시작된 인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로 거듭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이요,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복음화, 교회의 자기 복음화는 바로 선교적 공동체인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래 모습을 갖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임무이자 의무이다.

## 가

한국 천주교회 역사는 불과 200년이 조금 넘는 신생 교회에 속한다. 1784년 이승훈의 첫 세례 이후 정식으로 세례를 받는 신자가 생겨나면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후 조선말기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100년 이상 박해를 받기도 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가 몰래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의 전통을 이어오던 시절이 불과 200년 전의 우리 교회 모습이다.

그후 1970년대가 돼서야 한국 천주교회 신자수가 100만 명에 이르렀고, 매 10년 주기로 100만 명 정도의 신자들이 증가해 2010년 한국 천주교회 신자는 500만 명을 넘었다. 물론 한국 천주교회가 역사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른 건 사실이나 이러한 외적 성장과는 달리 현재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갈수록 냉담자는 늘어나고 미사참여율은 줄어들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본당에서 나뉘대로 단체나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들조차 신앙의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가톨릭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올바른 신앙관과 구원관이 무엇인지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따라하는 데 급급한 모습들이다. 그뿐

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있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인식이 없이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들 중에는 한국의 토속신앙의 여러 형태를 가톨릭 신앙생활에 접목시키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아직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 선포 즉, 선교활동과 더불어 잃어버린 양 찾기 그리고 기존신자들의 재복음화, 새로운 복음화가 동시에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2011년 각 교구에서 새로운 복음화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화를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비록 늦었지만 정말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복음화 사업이 단지 몇 년간의 교회의 사목목표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복음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교회의 근본 소명이며 또한 이 지상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단순한 사업이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 현재 교회의 당면 과제인 새로운 복음화를 추진해 가기 위해 먼저 교회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복음화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신분과 직분 안에서 또 각자 처해진 환경과 역할 속에서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재복음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 열매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복음화 시키는데 우리 교회가 그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현대 교회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공의회의 결정들을 따르기 위해 새롭게 신심운동과 신앙쇄신 운동들을 전개했다.



신심운동과 쇄신운동은 그 방법은 서로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신자들의 신앙쇄신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 많은 신자들이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으며 하느님 체험을 한 사람들은 깊은 기도 생활과 함께 성경을 보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은 삶의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열정과 열기는 교회의 활성화와 직결돼 어떤 분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잠자고 있던 우리 교회를 깨웠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열정에도 불구하고 정통 그리스도교 국가들이던 유럽의 교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너무 오랜 세월 신앙 공동체생활을 해 오면서 타성에 젖은 것일 수도 있고 지쳐서일 수도 있다. 아무튼 눈에 보이는 유럽의 교회는, 외형은 여전히 위엄을 갖추고 있지만 힘은 다 빠진 것처럼 보인다.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불이 잘 붙지 않고 있다.

그 동안 한국교회의 활약은 돋보이기에 충분했다. 성소자는 매년 증가해 신학교 입학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정도의 열정이면 앞으로도 사제가 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다. 한국교회 신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성전이 부족할 정도다. 신자들 개개인에게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교회를 위해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신자들은 기꺼이 동참하고 있다. 그뿐인가.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도 여러 신심운동과 쇄신운동의 활동으로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한 신자로서의 의식도 정립돼 가고 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3000년대 아시아 복음화의 중심지요, 핵이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로 넘어온 그리스도교의 중심축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 이러한 모습이 단지 희망사항이라고만 보여 지진 않는다. 하지만 이러

한 비전은 동시에 우리 자신이 잘 준비하고 역량을 갖추는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의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된다. 새 복음화를 시작하면서 복음화는 우리 자신의 회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잘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 구성원 전체가 새로운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함께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교회 구성원이 새로운 의식을 갖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충직한 종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 세상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해야 한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저 성당에 나가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혹시 올지 모를 불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분들이 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기도를 바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행복을 찾고 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참 행복을 갈망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이렇듯 삶의 의미와 목표를 행복한 삶에 두고 살아간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소유하고 또 무엇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었음에도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맨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높은 지위에 올랐음에도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하

는 이들이 많다. 참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이끌어주시고 그 안에서도 행복을 느끼게 해주신다.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고통을 당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 행복을 얻기 위해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 안에서 실천하는 ‘실천적 신앙인’이 되어 한다. 교회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세상적인 모습들을 그리스도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 배경을 논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설명해 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야 한다.

만약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이들도 자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신앙은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행복, 행복의 길로 초대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행복을 파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행복을 팔기 위해 사랑을 보여 주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다.